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최 석 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연구

— 7학년 검정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황 정 인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연구

— 7학년 검정교과서를 중심으로 —

최 석 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황 정 인

인 준 서

황정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웃음의 사회성’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유머’에 주목하여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교수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어교육에서 재담 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 먼저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2007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짚어보고, 교육과정의 학급별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재담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재담 분석을 하기 위한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재담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웃음과 재담의 개념, 재담의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짚어보고 나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재담의 유형을 새롭게 다루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재담 교육의 실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 및 재담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과서를 분석하기 전에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교과서 반영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서의 교육과정 반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과서 분석을 하는데, 본고에서는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므로 재담 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나갈 것이다. 재담 단원 분석은 크게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과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간의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도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재담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본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재담의 국어 교육적 가치를 역설할 것이다. 6장은 결론이므로, 앞서 다루었던 재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 본고의 한계점을 짚으면서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정 7학년 국어과 검정교과서 23종을 대상으로 한다.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면 총 92책인데 그 중에서 재담 단원이 구성된 여부를 살펴본 후, 재담 단원이 구성된 교과서의 재담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재담 단원에 설정된 영역별로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분석하고 나서, 재담 단원에 구현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와 내용 요소의 예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를 기준으로 삼아 들여다 볼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 교육과 연계 교육이 교과서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간의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2장에서 다루는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을 토대로 개정 국어과 23종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의 담화와 글을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 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검토 ····· 4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2.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 ····· 14
2.1. 웃음을 자아내는 재담의 개념 ····· 14
2.2. 재담의 원리 및 기능 ····· 16
2.2.1. 재담의 원리 ····· 17
2.2.2. 재담의 기능 ····· 19
2.3.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유형 ····· 24
2.3.1. 말놀이 ····· 24
2.3.2. 기지 ····· 25
2.3.3. 과장 ····· 26
2.3.4. 풍자 ····· 26
2.3.5. 조롱 ····· 27

3.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담 교육의 이해와 특성 ····· 28
3.1. 재담 교육의 특성 ····· 31
3.2.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단원의 실제 ····· 46
3.2.1.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 분석 ····· 46
3.2.2.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분석 ····· 57
3.2.3. 재담 단원의 학습 활동 분석 ····· 72
3.3. ‘국어’와 ‘생활국어’에 수록된 재담 교육 연계성 ····· 82

4.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유형별 분석 ····· 88
4.1. 말놀이가 두드러지는 재담 ····· 90
4.2. 기지가 두드러지는 재담 ····· 97
4.3. 과장이 두드러지는 재담 ····· 99
4.4. 풍자가 두드러지는 재담 ····· 102
4.5. 조롱이 두드러지는 재담 ····· 106

5. 재담의 국어 교육적 가치 ····· 112

6. 결론 ····· 116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 7학년 국어·생활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의 유형별 현황 ····· 30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 중 '재담'의 정의 ····· 36
[표 3]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 중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 38
[표 4]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6학년·7학년 재담 교육 내용 ····· 41
[표 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듣기 영역 성취기준이 반영된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 예시 ····· 42
[표 6] 개정 7학년 국어 교과서에 설정된 재담 단원의 영역 현황 ····· 48
[표 7] 개정 7학년 국어 · 생활국어 교과서에 구성된 재담 단원 현황 ····· 49
[표 8] 듣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 59
[표 9] 듣기·말하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60
[표 10] 듣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61
[표 11]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 63
[표 12]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64
[표 13] 듣기·문법·문학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 66
[표 14]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 68
[표 15] 읽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70
[표 16] 개정 7학년 국어·생활국어 16종 교과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 ····· 82
[표 17] 개정 7학년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16종의 연계 현황 ····· 85
[표 18] 2007 개정 7학년 국어 · 생활국어 교과서의 재담 제재 수록 현황 ····· 88

1. 서 론

1.1. 연구 목적

2007년 2월 28일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1]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언어 환경은 더욱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일상에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갖추려면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 한 종류의 국정 교과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초·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전환하였고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2]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어과 검정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010년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어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3]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 국어과 교과서의 종류는 23종으로 검정·편찬 되었는데, 국어 및 생활국어를 포함하여 이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서 모두 합하면 총 92책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

1) 2007년 2월 28일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의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번 개정은 과거의 개정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취지, 체제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수시 · 부분 개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대신 2007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2) 오류 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검정방식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졌던 기존과 달리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 교과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학문 발전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칙]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함.
2009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2010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2011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2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13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는지 즉,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사고 행위와 소통 행위의 매개인 '언어' 자체가 교과의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 이에 따라 국어과는 범교과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고, 사회 전반의 거의 모든 분야를 자연스럽게 교수·학습 제재로 아우르게 된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지식이나 기능 뿐 아니라 언어활동이 갖는 사회성, 대화성, 관계성, 소통성을 중시[4]하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으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활동의 사회성과 소통성이 두드러지는 '재담 교육'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재담 교육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통과 반응을 하기 위하여 매우 적절한 국어과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웃음과 유머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문화에 존재하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험이다.[5] 유아는 대략 생후 4개월이 되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웃기 시작하는데, 이를 보고 웃음이 곧 인간의 최초의 '사회적 행위'[6]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유머는 의사소통 과정에 주로 사용된다. 유머는 긴장 상태를 이완시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며, 주의를 환기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놀이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는 이를 사용하면

---

4) 교육부(2009),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참조.

5) Rod A. Martin(2008), 『유머심리학: 통합적 접근』, 신현정 옮김, 박학사, 3쪽 재인용. (Apte, M. L. (1985). *Humor and Laughter: An anthropological approach.*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Lefcourt, H. M. (2001). *Humor: The psychology of living buoyantly.* New York: Kliuwer Academic.)

6) Rod A. Martin(2008), 위의 책, 3쪽 재인용. (McGhee, P. E (Ed.). (1979). *Humor: Its Origin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스스로 즐거울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한 창의력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유머를 잘 구사하면 대인관계 기술이 높아지고,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하면서 이해력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의 대화 전략에 유머를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국어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올바른 언어사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유머 텍스트에 대한 요구는 학교 교육에도 정식으로 수용되었다. '웃음'이나 '재미'에 대한 교육적 내용 요소가 자리 잡지 못했던 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재담'이나 '풍자' 등으로 그 용어가 비교적 통일되어 제시되었다. 이렇게 '재담 교육' 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알다시피, 유머와 웃음은 예로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현재도 끊임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웃음과 관련된 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재담 교육'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분석하며 교육 방안을 연구하여, 단 한 종류의 국정 교과서에서 십 수 년 만에 약 23종으로 새롭게 검정·편찬된 국어과 교재의 연구 및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3종의 7학년 국어과 검정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교과서의 재담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특히 '웃음의 사회성'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유머'에 주목하여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효과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어교육에서 재담 교

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먼저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2007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짚어보고, 교육과정의 학급별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재담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볼 것이다. 개정 7학년 검정 교과서 23종(국어 및 생활국어, 1·2학기 포함 총 92책)을 대상으로 재담 단원 구성 여부를 살펴본 후, 재담 단원을 중심으로 단원의 영역 설정과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국어 및 생활국어에 수록된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 양상 등을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본고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선행 연구의 검토 방향을 유머의 유형에 대한 연구와 재담 교육을 논의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유머 이론 및 유형에 관한 유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영원(1996)에서는 디자인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유머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베르그송,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칸트, 프로이트 등을 예로 들며 웃음 및 웃음을 일으키는 유머에 대해 정의한 다음, 유머의 유형을 위트(Wit), 풍자(Satire), 아이러니(Irony), 패러디와 벌레스크(Parody & Burlesque), 그리고 기타 희극 및 소극(笑劇)적 요소로 구분하였고, 유머의 언어 사용 방법에 대해 시각적 관점을 가지고 펀(pun), 과장(hyperbole), 반복(repetition), 비교 및 비유(comparison & contrast)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중세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술사 및 디자인사에 나타난 시각적 유머를 짚어보면, 웃음을 일으키는 유머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도영(1999)은 유머 텍스트의 생산자가 설치하는 웃음 유발 장치에 초점

을 두어 유머 형성 방법을 언어적 유발 장치와 비언어적 유발 장치로 보았다. 언어적 유발 장치로는 발음 활용하기, 단어나 어구의 중의성 활용하기, 단어나 어구 파괴하기, 사투리 활용하기, 받침 활용하기, 음성 연상 활용하기, 대구 활용하기 등으로 나누었고, 비언어적 유발 장치로는 동문서답하기, 되받아치기, 고정 관념 이용하기, 특징 찾아 핵심 찌르기, 정곡 찌르기, 우스운 상황 연출하기, 함정 만들기, 배경 지식 충돌시키기, 패러디하기, 과장하기, 형태에 의미 부여하기 등으로 설정하였다. 유머 텍스트는 PC통신, 인터넷, 책 등에서 참고하여 예를 들었다.

구현정(2000)에서는 유머(humour)를 '남을 웃기거나 즐겁게 해주는 말의 통칭', 익살(joke)은 '남을 즐겁게 하려고 고안된 말 가운데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 해학(wit)은 '남을 즐겁게 하려고 고안된 말 가운데 특정한 대화 상황과 문맥에서만 나타나는 말'이라고 정리하고, 유머 담화·익살 담화와 해학 담화로 나누어 그 구조를 설명하였다. 익살 담화는 구조 만들기와 급소 찌르기의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해학은 특수한 대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문맥 의존성을 가지므로 익살보다 해학이 대화 상황에서 유머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손세모돌(2001)에서는 유머 형성 원리를 듣는이의 예측이 어긋나거나 예측 불허인 상태인 '의외성'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머가 적절하게 작용하려면 의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식과 그 지식으로부터 가능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유머 형성 방법을 내용에 의한 방법과 언어적인 방법으로 나누었는데, 언어적인 방법으로는 동음이의어, 음상이 유사한 말, 말 전하기의 변질 등이고, 내용에 의한 방법으로는 대상 희화하기, 대상의 특성이나 전형성 이용하기, 전형적인 상황 제시하기, 상식 깨뜨리기, 연상 이용하기, 패러디하기, 자조적으로 표현하기, 의사소통 실패 이용하기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은해(2001)는 구비재담과 통신재담이 말과 문자를 매개로 달리 전승되

지만, 화자(작가)와 청자(독자)가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참여에 의해 공동작을 적층해 가는 전승과정은 양자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비문학의 구술성의 원리가 수용된 통신재담에 주목하면서, 고전 재담이 지닌 웃음의 전략이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화법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라고 보고, 웃음을 일으키는 기제, 담론의 양식에 따라 웃음의 층위를 순연한 웃음, 기지, 과장, 풍자, 야유와 악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권순희(2002)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로의 매체 변화에 따른 유머의 표현 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IT의 발달로 하이퍼텍스트 또한 글과 그림뿐 아니라 그래픽, 소리, 말, 애니메이션, 비디오 영상 등과 통합하게 되면서 일상 대화에서의 유머와는 다른 유머의 유형을 고민하였다. 먼저 유머의 유형을 외형적 구조와 내용 구성 방식에 따른 유머로 분류하였고, 외형적 구조로는 수수께끼식 질문형, 이야기형, 대화형, 내용 구성 방식에는 말놀이형, 분석형, 서사 구조형으로 나누었고, 유머의 기제를 일반적 표현 기제와 인터넷에 나타난 유머인 하이퍼미디어적 표현 기제로 분류하여, 다시 각각 가상공간에 드러난 표현 기제와 시각적 표현기제로 언급하였다.

육영주(2003)에서는 언어를 기제로 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언어적인 장치를 살펴보았는데, 방송에 사용된 언어유희가 일상 언어와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개그콘서트에 나타난 언어유희를 크게 반복에 의한 언어유희, 수사에 의한 언어유희, 상황변환 이해에 의한 언어유희로 나누고, 반복에 의한 언어유희는 완전반복과 부분반복, 수사에 의한 언어유희는 은유와 과장, 상황변환 이해에 의한 언어유희는 관용구 해석의 전환, 동문서답식, 전제삭제 등으로 보았다. 여기서 관용구 해석의 전환이란 관용구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용되어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일컫는다.

정현선(2004)에 의하면, 유머는 메시지의 생산 주체와 이를 해독하는 수용

자가 특정한 정보, 배경 지식, 정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공유하는 방식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 여부가 판가름되는 매우 섬세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특히 인터넷 유머는 하이퍼텍스트의 속성상 원본 텍스트의 복제, 이동, 수정이 자유롭고, 누구나 텍스트 생산, 수용,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까닭에(배식한: 2000; Landow),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인쇄매체를 기반으로 한 문식성을 넘어선 '다중문식성(multiliteracies)'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유머 텍스트는 유포 과정을 통해 특정한 의미가 생기므로, 최초의 저자가 유머의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저자(author)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인터넷 유머의 의미 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중문식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언어의 매체적 존재 조건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현지(2005)는 유머를 크게 비언어적 유머, 언어적 유머, 공격적 유머, 정서적 유머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비언어적 유머는 비언어적 경로(non-verbal channal)를 통해 나타나는 몸짓, 표정, 행동 등의 신체적 사용에 의한 유머의 형태이고, 언어적 유머는 음운, 어휘, 문법, 구문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주로 음성에 의한 '말하기'이며, 공격적 유머는 신체적 · 정서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에 의한 유머이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유머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감정의 유머임을 역설하였다.

정혜민(2009)에 따르면, 재담의 유형을 내용에 따른 재담과, 언어적 장치 활용에 따른 재담으로 나누고, 내용에 따른 재담으로는 상식 뒤집기, 패러디하기, 유사성 찾기, 비유와 암시하기, 대상 희화하기, 되받아치기, 극한 상황 설정하기, 불쾌함을 유쾌함으로 만들기로 분류하였고, 언어적 장치 활용에 따른 재담으로는 동음이의어 활용, 음상의 유사 활용, 음성 연상 활용하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유머와 연관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권순희(2002)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유머의 유형을 분류하고, 매체 변화에 따른 인터넷 유머의 표현 기제를 하이퍼미디어적 표현 기제로 상정하여 가상공간에 드러난 표현과 시각적 표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유머는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제거하며, 활력소를 제공하는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 표현 교육으로 포함하여 국어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범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교육 안에서 양면성을 지닌 유머에 대한 성찰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현선(2004a)에서는 인터넷 유머는 한국의 당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언어 텍스트이며, 학생들로 하여금 미디어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갖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바르트가 언급한 '쓸 수 있는 텍스트'를 학습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쓸 수 있는 텍스트란 곧 작가가 되라고 말하는 텍스트이며, 다시 말하면 인터넷 유머를 통해 다중문식성과 하이퍼 텍스트적 소통 원리의 언어 교육적 수용을 통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현선(2004b)에서는 문자 언어와 시각 이미지가 결합되어 빠른 속도로 사회를 반영하는 인터넷 유머를 이해하려면 소통 방식 및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중문식성의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머 텍스트는 사회적 담론의 중층성을 반영하는 까닭에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국어교육에 의한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시각을 길러내야 하는데, 바르트(Barthes, 1970)가 말한 '쓸 수 있는 텍스트(writerly text)', 즉 수용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미 구성이 가능한 '작가가 되라고 말하는 텍스트'를 실제 국어 수업에서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복잡한 해석을 통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윤천탁(2007)에서는 유머와 유머 텍스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어교육에

서 유머 텍스트의 의의를 살핀 후, 유머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유머 텍스트에 대한 학문적 접근보다 국어교사가 현장 국어교육에서 유머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제적 접근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유머 텍스트는 유머 텍스트 즉 재담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닌 다른 내용 요소의 학습을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 가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담 자체를 위한 교육을 좀 더 확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원규(2008)에서는 7차 교육과정 속의 '웃음(재미) 요소'를 분석하고, 중학교 교과서 속의 웃음 교육 관련 제재를 살펴보고 개정 교과서에서의 재담 교육 구현 방향을 설정해보는 작업을 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유머 텍스트의 개념을 재담으로 정의하고, 개정 교과서의 재담 구현 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재담 교육에 기대되는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탐구가 없는 점이 아쉽다.

정혜민(2009)에서는 2007~2008년 당시 유행하던 재담을 중심으로 재담에서의 웃음 유발 원리와 재담의 유형들을 분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각 유머의 원전을 찾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재담의 유형과 재담의 국어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속에서 다루는 재담 교육에 대해 살핀 후 제시한 재담의 교수·학습 방안은 재담의 유형이 개정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지 않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현나(2009)에서는 유머 텍스트를 활용한 화법 교육방안 연구를 하였는데, 먼저 유머 텍스트의 개념과 특성을 언급하고, 그 다음 유머 텍스트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머 텍스트를 기능별로 정서 순화형, 풍자형, 언어 유희형, 이야기형, 비교 분석형으로 나누었고, 소재별로는 성적 유머, 정치·경제·문화·사회·종교·시사 유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유머 형성 방법에 따라 언어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손세모돌(1999)의 유

형 분류를 참고하여 새롭게 유형을 나눈 의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화법 교육 방안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유머 전략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박찬미(2011)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 네 종류 중에서 유머 관련 단원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들어 교육과정에서 유머 부분이 인색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전국 중 고등학생 이야기 대회'라는 실제 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것과 TV예능프로의 두 가지 발화 자료를 비교 · 분석하고 도출된 웃음 유발 원인을 선행 연구의 웃음 유발 원인과 비교하여 공통의 유머 전략을 정리하였다. 웃음 유발 원인을 크게 언어적 원인과 비언어적 원인으로 나누고, 언어적 유머 전략으로는 동음이의어, 사투리, 비속어, 배설금기어 그리고 청자 대우 등급을 바꾸는 전략이 있다고 하였다. 비언어적 유머 전략으로는 비예측성을 활용하는 반전, 허 찌르기, 구조면에서는 패러디, 부연, 내용면에서는 자기 상대방 비하 약점 이용, 과장, 배경지식, 성적인 농담 등이 있고, 반 언어는 억양 살려 쓰기, 신체를 이용한 비언어에는 얼굴표정, 몸동작 활용하기,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전략도 있다. 유머 교수·학습 전략을 토대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하였으나, 유머 전략을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 검증하지 못한 데다 화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머의 유형을 대체로 언어적인 기제와 비언어적인 기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로 하여금 유머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직접 생각하고 쓰고 말하여 만들어내는, 즉 자발적인 유머 텍스트 생산자가 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하이퍼텍스트적인 유머 텍스트를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우리 재담의 적층성을 넘어서서, 그것이 시시각각 상호작용하여 전파·재생산하는 과정을 당대 문화와 사회를 풍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반면에 우려도 적지 않다.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

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사회를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며, 어쩌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담의 의미를 우리 고전뿐만 아니라, 서양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웃음 이론을 짚어보고, 요즘 유행하는 통신언어를 활용한 재담까지 예로 들어 이 시대의 새로운 재담 유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웃음의 사회성'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유머'에 주목하여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교수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어교육에서 재담 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 먼저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2007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짚어보고, 교육과정의 학급별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재담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재담 분석을 하기 위한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재담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웃음과 재담의 개념, 재담의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짚어보고 나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재담의 유형을 새롭게 다루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교육의 실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 및 재담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고, 교과서를 분석하기 전에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교과서 반영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서의 교육과정 반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과서 분석을 하는데, 본고에서는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므로 재담 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나갈 것이다. 재담 단원 분석은 크게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과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간의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도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재담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본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재담의 국어 교육적 가치를 역설할 것이다. 6장은 결론이므로, 앞서 다루었던 재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정 7학년 국어과 검정교과서 23종[7]을 대상으로 한다.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면 총 92책인데 그 중에서 재담 단원이 구성된 여부를 살펴본 후, 재담 단원이 구성된 교과서의 재담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재담 단원에 설정된 영역별로 대단원명과 소단

7) 본고에서는 편의상 23종의 교과서를 출판사 이름과 대표 저자 이름 약자로 표시하기로 한다. (약자를 중심으로 출판사명 가나다순, 동일 출판사의 경우 대표 저자명 가나다순)

약자	출판사, 대표 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 저자
교학사 (김)	교학사, 김형철 외	**새롬 (권)**	새롬교육, 권영민 외
교학사 (남)	교학사, 남미영 외	**웅진 (이)**	웅진씽크빅, 이충우 외
금성 (윤)	금성 출판사, 윤희원 외	**좋은책 (이)**	좋은책 신사고, 이숭원 외
대교 (박)	대교, 박경신 외	**중앙 (이)**	유웨이중앙교육, 이숙 외
대교 (왕)	대교, 왕문용 외	**지학사 (방)**	지학사, 방민호 외
두산 (우)	두산 동아, 우한용 외	**지학사 (이)**	지학사, 이용남 외
디딤돌 (김)	디딤돌, 김종철 외	**창비 (김)**	창작과 비평, 김상욱 외
디딤돌 (이)	디딤돌, 이삼형 외	**천재 (김)**	천재교육, 김대행 외
미래엔 (윤)	미래엔컬쳐, 윤여탁 외	**천재 (노)**	천재교육, 노미숙 외
미래엔 (이)	미래엔컬쳐, 이남호 외	**천재 (박)**	천재교육 박영목 외
박영사 (송)	박영사, 송하춘 외	**해냄 (오)**	해냄에듀, 오세영 외
비상 (조)	비유와 상징, 조동길 외		

원명을 분석하고 나서, 재담 단원에 구현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와 내용 요소의 예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를 기준으로 삼아 들여다 볼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 교육과 연계 교육이 교과서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간의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2장에서 다루는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을 토대로 개정 국어과 교과서 23종에 수록된 재담의 담화와 글을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

2.1. 웃음을 자아내는 재담의 개념

유머는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그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리고 불합리 등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태도를 말한다. 유머는 크게 단순한 재미로 웃음을 전달하는 유머와 웃음을 통해서 사회와 인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교훈을 주는 유머로 나뉜다. 전자는 단순히 웃기는 상황이나 말을 뜻하는 해학, 골계, 익살 등이 있으며, 후자는 풍자, 아이러니, 모순, 역설, 과장, 축소, 패러디 등이 있다. 두 종류의 성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웃음을 준다는 넓은 의미에서는 유머의 범주 안에 위치한다. 유머는 두 가지 상황이 비교되면서 유머를 수용하는 사람의 공격적인 마음을 해소시키는 힘이 있다.[8] 철학적 해학과 지식으로 유머를 구사하는 사색적 유머작가 호르헤 보르헤스는 웃음에 관한 많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소개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선호했다. 쇼펜하우어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역설적이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는 사물에 대한 개념과 현실에서 전개되는 사물과의 차이를 우리가 투박스럽게 인식하기 때문이다.[9]

유머라는 용어가 유입되어 번역되는 과정에서 '해학', '골계' 등으로 마구 번역되었고 유머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의미 범주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골계, 해학, 익살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그 개념이 분명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머의 유형을 표현 내용 별로 해학, 기지, 풍자, 아이러니 등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은 학자

8) 정경원(2008), 「보르헤스 문학세계와 유머」, 『世界文學比較硏究』 제24집, 세계문학비교학회, 361쪽.
9) 정경원(2008), 앞의 논문, 362쪽.

들마다 다양하며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유머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유머 감각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유머 텍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미로 소리가 없는 미소에서 박장대소하는 홍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들을 '웃음'이라고 한다. 모든 희극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의 감정을 유발하고, 이 감정은 적어도 웃게 하려는 경향을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웃음의 감정'도 '웃음' 개념에 포함시킨다.

재담(才談)은 재치 있는 이야기로, 옛 사람들이 탈춤이나 인형극, 줄타기와 땅 재주넘기 등 놀이판에 갈 때 '재담을 들으러 간다'고 하였다.[10] 또 다른 경우, 예인이 아닌 일반 민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담 한 자리 하지'하며 서로 권하는데 이때의 재담은 입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미난 이야깃거리가 된다. 전문 예인들에 의해 전승된 재담은 연기를 동반한 고도의 재간풀이로 보통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반면 일상에서 풍류로 서민들이 즐기던 재담은 짧은 말놀이나 재담이야기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전문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재담이다. 특히 컴퓨터 및 핸드폰의 생활화로 통신언어도 함께 발달하면서 재담이 새롭게 구비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호 참여에 의해 공동작을 적층해 가는 것으로 우리 전통 재담의 구비 전승과 궤를 같이 한다.

국문학에서 '골계(滑稽)'와 '해학(諧謔)'의 개념은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코믹'이나 '희극적인 것'의 의미로 '골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유머'에 해당하는 용어로서는 '해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동화[11]는 「春香傳에 나타난 諧謔性」에서 '해학'

10) 강은해(2001a), 「한국 재담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학논집』 제2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쪽.

이란 말을 'comic의 同義(동의)'로 보고, '골계'는 '익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정동화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말 용어에서도 滑稽(골계)와 익살은 同義語(동의어)이고 諧謔(해학)만이 달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筆者(필자)는 諧謔(해학)을 comic의 同義(동의)로 보아 上位槪念(상위개념)으로 設定(설정)하고, 유우머(humour), 익살(滑稽, drollery), 풍자(satire) 등과 함께 下位槪念(하위개념)에 넣고자 하며 앞으로 諧謔(해학)이라 함은 廣義(광의)의 '웃음의 문학(comic)'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웃음 및 재담의 개념은 오랜 세월을 걸쳐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웃음이나 재담을 어떤 특정한 한 학자의 이론만으로써 파악한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 학자들이 언급해 왔던 웃음과 재담의 원리 및 기능에 대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2.2. 재담의 원리 및 기능

유머나 재담은 개인적 대화나 공적 말하기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유머는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과 관련되는 '우스개', '익살', '해학'으로서, 오늘날에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남녀노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담은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러한 말을 가리키는데, 본래는 탈놀이, 판소리 같은 전통 연희에서 광대나 소리꾼이 연행의 흥취를 돋우기 위하여 들려주는 우스갯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담이 일어나기까지의 기본 원리와 웃음을 주는 재담의 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11) 정동화(1976), 「춘향전에 나타난 해학성」, 『국어교육』 제27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20~122쪽.

2.2.1. 재담의 원리

여기에서는 먼저 기존에 제시된 웃음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재담이란 성격에 따라서 골계(comic, 인지적 차원), 풍자(satire, 사회적 차원) 그리고 해학(humor, 감성적 차원)으로 나뉜다. 골계란 '우스개' 또는 '익살' 정도에 해당하고, 풍자란 사회의 부조리·불합리·악습 등과 개인의 우행·위선·결핍 등을 지적하고 조소함으로써 일종의 골계적 효과를 나타내는 언어표현의 한 형식이며, 해학은 풍자처럼 대상과 대립하고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적대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랑과 동정으로 감싸게 만드는 골계적 효과를 일컫는다.[12] 일반적으로 웃음에 관련된 이론들은 대개 '우월론', '이완론', '부조화론'으로 나타난다.[13]

우월론(superiority theory, 풍자론)은 웃음을 우월감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규범적 이론을 의미한다. 이 이론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에 의하면, 희극은 '보통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는 것'이다.[14] 여기서 '악인'이란 모든 종류의 악과 관련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종류의 악, 즉 '우스꽝스러운 것'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실수나 '추악함(ugliness)'의 일종이었다. 결국 웃음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코미디와 코미디의 인물들은 대개의 경우 중요하지 않으며, 그 등장인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못 미치는 열등한 존재들이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심적인 우위를 점함으로써 웃는다는 것이 플라톤과 홉스[15] 역시 주장한 바이다. 데카르트는 자기와 비교하여 타인의 단점과 불완전성을 보고 자신의 우월성을 느끼는 것이 웃음을 유발한다[16]고 보았다.

---

12) 이재원(2003a), 「유머 텍스트 연구」, 『독어교육』 제28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55쪽.
13) 박근서(2006), 「웃음, 위반과 일탈의 텍스트: 프로이드의 공식을 중심으로」, 『웃음문화』 창간호, 한국웃음문화학회, 42쪽 재인용. (J. Morreall, *Philosophy of Laughter and Humour*,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87, pp. 128~138.)
14) Aristoteles(2002), 『시학(Poetics)』,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45쪽.
15) 류종영(2005),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128~129쪽 참조.

부조화이론(incongruity theory, 골계론)은 웃음을 인지적 차원의 부조화와 연관 짓는 이론으로 흔히 '이중결합이론(bi-sociation theory)'으로 불리며, 특정한 담화나 행동이 그것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다른 맥락의 이야기로 전치되면서 발생하는 오해와 이 오해가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17] 여기서 '부조화'란 결국 화자와 청자가 상식에서 합의한 것을 함께 깨뜨리고 다른 맥락의 다른 의미에서 서로 조우하는 일종의 수사적 계약의 공모적 파괴이다.[18] 이는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현실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파악했을 때 웃음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쇼펜하우어의 불일치이론[19]도 이에 해당된다.

이완론(relief theory, 해학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가 예기치 않게 심리적 긴장이 해소되면서 웃음이 발생한다고 간주하는 이론이다. 이를 해소론 이라고도 하며, 웃음은 일종의 안도(relief) 혹은 긴장완화(release)로 정의된다. 칸트는 '웃음은 긴장된 상태라 무(無)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서 유래한 격렬한 흥분'[20]라고 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웃음은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바싹 긴장하고 있을 때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이다.[21] 그러나 안도의 개념으로 웃음의 문제에 접근한 가장 고전적인 논의는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한다. 프로이드는 사회를 다양한 유형의 필요한 억압을 행사하는 주체로 보았고, 이러한 억압은 우리가 정신 에너지(psychic energy)를 소비하는 일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웃음이 일종의 심리적 경제(economy in psychical expenditure)를 실현하는 합리적 현상이며,

16) 이상근(2002), 『해학 형성의 이론』, 일조각, 28쪽.
17) 박근서(2006), 앞의 논문, 43쪽 재인용. (F. Gray, *Woman and Laughter*, London: Macmillan, 1994, p.33.)
18) 박근서(2006), 앞의 논문, 43쪽 재인용. (A. Koestler, *Inside and Outlook*,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49, p.31.)
19) 이상근(2002), 위의 책, 28쪽.
20) 류종영(2005), 앞의 책, 202~203쪽.
21) 류종영(2005), 앞의 책, 28쪽.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게 된다고 주장하였다.[22]

다시 말하면, 우월론은 기지, 과장, 풍자, 조롱과 비웃음, 조소 등을 보면 화자의 기본 태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롱과 비웃음, 조소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23] 부조화(불일치)이론의 특징으로는 의외성과 비예측성을 들 수 있으며 기지, 과장, 반전, 우스개, 익살 등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곧 예상을 뒤엎는 발상이나 허를 찌르는 반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웃기려는 의도가 없는 말이나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비의도적[24]·우발적 유머(accidental humor)[25] 또한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 스스로도 깜짝 놀라면서 웃을법한 부조화(불일치)이론의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이완(해소)론은 대체로 해학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 재담의 정서적 기능을 대변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재담의 원리를 인지한 다음, 즐겁게 놀거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재담을 하는 등 여러 상황 맥락 속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재담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2.2. 재담의 기능

재담은 앞서 언급하였던 우월론, 부조화(불일치)이론, 이완(해소)론 등을

---

22) 박근서(2006), 앞의 논문, 42쪽 재인용. (Freud, S.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tr. by James Strachey,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8*, London: Hogarth Press, 1960., pp. 42~4; 118~20; 124~8.)

23) 류종영(2005), 앞의 책, 150쪽.

24) Rod A. Martin(2008), 『유머심리학: 통합적 접근』, 신현정 옮김, 박학사, 18쪽 재인용. (Wyer, R. S., & Collins, J. E. (1992). A theory of humor elicitation. *Psychological Review*, 99(4), 663-668.)

25) Aleen Nilsen과 Don Nilsen(2000)는 우발적 유머를 신체적 형태와 언어적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우발적 신체 유머에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거나 셔츠에 음료를 엎지르는 등의 사소한 실수가 포함된다. 예상치 못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경험하는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당황스럽지 않을 때 재미를 유발하며, 이런 유형의 유머는 과장되거나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코미디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Rod A. Martin(2008), 위의 책, 18쪽.

* 갑작스런 사소한 실수에 의한 웃음은 쇼펜하우어가 '불일치이론'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류종영(2005), 앞의 책, 275~280쪽.

기본 원리로 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누구나 음성언어 의사소통을 할 때,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웃음과 유머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굳이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홀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신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웃기도 한다. 이는 지극히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인지적이고 정의적이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재담 및 재담 교육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재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담의 기능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바로 즐거움 제공의 기능, 사회적 기능, 사회 비판적 기능, 창의적 기능, 긍정적 효과의 기능이 그것이다.[26]

먼저 재담은 사회적 기능을 한다. 웃음은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지닌다. 웃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며,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음성언어 의사소통, 즉 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두 사람이 아닌 혼자 있을 때 웃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홀로 일 때마저도 유·무형의 개체나 기제 등이 존재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웃는 행위는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떤 집단 속에 속해 있을 때 같이 웃는 사람들과의 일치, 이를테면 공범 의식 같은 것이다. 이를테면, 극장 관객의 수가 많을수록 그 웃음소리도 함께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27] 웃음은 그것이 일으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엉뚱한 행동들을 제어하고, 자칫 고립되고 둔화될 위험이 있는 하찮은 부분의 행동들을 부단히 깨어있게 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결국 사회 집단의 표층에 기계적인 경직성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순하게 한다.[28] 결국 웃음이란 지극

---

26)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8쪽 참조. 재담의 기능을 구분하는데 참고하였음.

27) 류종영(2005), 앞의 책, 364쪽 변용.

28) Henri Bergson(2008), 『웃음』, 정연복 옮김, 세계사, 25쪽.

히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의도성이 내재된,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신호인 것이다.

그리고 재담은 즐거움을 제공한다. 유머를 구사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이다. 인간에게 있어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유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놀이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놀이는 중요한 사회, 정서 그리고 인지기능을 수행한다.[29] 실제로 모든 포유류는 어린 시절에 놀이에 몰두하는데, 인간은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머를 통해서 일생 동안 놀이를 계속한다.[30] 가령 우리는 진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갑작스럽게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함께 웃으면서 잠시나마 놀이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재담은 사회 비판적 기능을 한다. 사회 문제를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웃음은 무엇보다도 교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때로는 모욕감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웃음은 그 웃음의 대상에게 고통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회는 사회를 상대로 사람들이 누려왔던 자유에 대하여 웃음을 복수하는데, 웃음이 만일 공감과 선의의 흔적만을 지니고 있다면 아마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웃음으로 벌하는 대상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웃음의 의도 자체는 좋을 수 있으며, 따라서 웃음은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결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교정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안으로부터 개선해나가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재미있는 말에는 대체로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들어 있어서 사회 비판적

29) Rod A. Martin(2008), 앞의 책, 7쪽 재인용. (Bateson, P. (2005). The role of play in the evolution of great apes and humans. In A. D. Pellegrini & P. K. Smith (Eds.), *The nature of play: Great apes and humans* (pp. 13-24). New York: Guilford Press.)

30) Rod A. Martin(2008), 앞의 책, 7쪽 참조.

31) Henri Bergson(2008), 앞의 책, 158쪽 변용.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비판은 직접적인 비판의 표현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32]

재담은 창의성을 길러주기도 한다. 재담을 만들거나 재담을 주고받는 활동은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며, 언어 구사능력과 사고력이 증진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창의력도 향상된다. 전래동요의 경우, 곡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노래로 불리거나 웅얼거리는 소리로 구연되며 변모 개작되기도 하면서 사물의 특징과 낱말을 조화시켜 부른다. 전래동요는 또한 말놀이나 놀림동요 등의 놀이를 통한 언어 훈련, 사회성 배양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서적인 면과 음악성의 향상 뿐 아니라 어휘력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33] 전래동요의 리듬과 압운, 반복과 후렴의 배열에서 오는 즐거운 소리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34] 또한 전래동요가 지닌 즉흥성은 언어적 창의성을 길러준다. 동요의 주목할 만한 특성은 동요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동요의 전체를 즉흥적이고 독창적으로 완성하는 집단요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요 또한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상상해낸 어휘를 통해 적층성을 가지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운율을 듣고 부르면서 언어를 익히고 언어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35]

마지막으로 재담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웃음을 주는 재담은 긴장 상태를 이완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좌절하고 실의에 빠지기 쉬운 역경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며, 주의를 환기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놀이나 즐거움을 목적

---

32)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8쪽.

33) 박현주(1998), 「전래동요와 창작동요 프로그램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41쪽 참조.

34) 정미경 · 이민정(2004), 「전래동요를 활용한 작가적 전략이 유아의 어휘력 및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1권 2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2쪽 재인용. (Norton, E. E. (1987) *Children's literature in the elementary school.*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5) 방은경(1996), 「동시 전달하기 활동이 유치원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으로 하는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은 이를 잘 사용하면 스스로 즐거울 뿐만 아니라, 유머를 제대로 구사하면 대인관계 기술이 높아지고, 교수 · 학습 활동에 있어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해력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의 대화 전략에 재담을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국어 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재담의 여러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가 웃게 되는 유머러스한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머를 만드는 기제는 그것을 생성해내는 사람의 참신한 생각과 행동이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음성 언어 뿐만 아니라 문자 언어, 준언어와 비언어, 그리고 반언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분과 그에 적절한 표정, 어조, 눈짓, 행동 등 무수한 변수가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웃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생각을 한층 유연하게 하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창의력을 키워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한편 고전작품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은 당대 사회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인들이 접할 때에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익숙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특히 구비문학은 재담의 말놀이, 기지, 풍자, 과장, 조롱 등의 여러 유형을 풍부하게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온 공동작의 적층적 형태라는 점이 현대의 통신재담과 맞물려, 통신재담이 구비문학의 새로운 갈래를 개척해나가고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재미있는 말은 즐거움 제공과 비판이라는 양면적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재미있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재담은 대중매체를 통해 활성화되므로 고전작품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TV에 등장하는 재담 또한 주의하여 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2.3.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유형

웃음을 일으키는 재담의 유형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언어적 기제와 비언어적 기제 즉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적 기제를 말놀이(언어유희)로 정하고, 내용적인 측면은 기지, 과장, 풍자, 조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 중 7학년 듣기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4)에 제시된 재담의 정의를 반영한 것이다. 성취 기준에 의하면,[36] '재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며,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리하여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재치 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에는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들어 있어서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리나 단어, 어구 등 언어적 기제의 말장난이나 언어유희를 '말놀이'로 정하고, '기지', '과장', '풍자', '조롱'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담의 요소로뿐만 아니라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정하여 본 연구를 펼쳐 나아갈 것이다.

2.3.1 말놀이(언어유희)

말놀이 중에서 반복(repetition)에는 같은 말의 반복, 접두어 및 접미어의 반복, 유사음의 반복이 있다. 과장의 방법이나 반복, 비교, 비유 또는 대조효과도 언어적인 것에서 시각요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크기를 주변 물체 또는 상황과의 정상적인 관계 또는 비례와 달리 하거나, 시각의 항상성을 벗어나게 표현된 형태, 그리고 이미 경험된 2차원과 3차원 공간의 기대를 모

36)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8쪽.

순된 공간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환상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정상적인 시각체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표현한다든지, 또는 색 표현으로도 유머효과의 시각적 적용이 가능하다. 펀(pun, 말장난)이란 곁말, 신소리,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 억지 글자의 차용, 연쇄법(連鎖法) 등을 사용한 익살이다. 유머의 언어사용의 방법적인 면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유용 가능한데, 펀(pun)의 요소, 과장(hyperbole), 반복(repetition), 비교 및 비유(comparison & contrast) 중 펀(pun)의 요소가 가장 효율적인 시각적 적용의 방법을 보여 준다.[37] 펀은 일반적으로 동음이의어에 근거하여 이차 의미를 촉발하도록 단어를 유머러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 및 통신기기의 발달과 함께 통신언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성에 의하여 말줄임을 통한 축약어가 흔하게 사용된다. 열거를 통한 새말 만들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언어유희의 한 방법이다.

2.3.2. 기지(wit)

경우에 따라 재치 있게 대응하는 재치 있는 슬기, 또는 지혜를 말한다. 여러 유형의 유머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조화의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intellectual)으로 의도된다는 것이다. 즉, 고도의 지적 조작으로, 경박하고 유희적인 것과는 다르다. 다른 유형들과 달리 급작스런 폭소를 야기할 때가 많다. 이는 골계(滑稽)의 일종으로 전혀 다른 관념을 서로 연결시켜 그로 인한 모순과 해결의 동시적·순간적인 전환으로 우스꽝스런 효과를 일으킨다. 즉, 막다른 위기를 회피하면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는 재치가 기지이다. 기지의 대상은 상대의 허점이나 약점으로, 말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직선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언어적 표현으로 허를 찌른다.[38] 언어의 표면적 의미 뒤에 숨겨진 의미 또한 웃음을 자아낸다.

---

37) 박영원(1996), 「디자인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유머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 청예논총』 제10집,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241쪽.
38) 이상근(2002), 『해학 형성의 이론』, 경인문화사, 621~623쪽.

2.3.3. 과장(hyperbole)

과장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표현할 때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과장의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서 강조점을 달리 하여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기법은 바람직한 극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때 과장은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장하는 대상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전설적인 왕과 전사들의 영웅적 행위를 이야기한 무용담・전설・민담, 허풍선이 이야기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 수사와 광고문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과장법과 반대의 표현으로 과소진술[39]을 들 수 있다.

2.3.4. 풍자(satire; parody; epigram; sarcasm)

무엇에 빗대고 비유하고 욕하는 것으로 유머(humor)나 익살(골계)과는 달리 독기 있는 비판이 서려 있다. 풍자는 항상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에 기인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날카롭고 노골적인 공격의도를 품고 대상의 약점을 폭로하지만, 유머러스한 효과로 비난, 공격 뒤에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악덕과 부조리를 비판함으로써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개인과 사회를 교정한다.[40] 풍자의 대상은 주로 관념이나 개인, 인류 등 개인적 행위에서부터 인류의 도덕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우행이나 악덕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 의하여 주로 성립된다. 풍자가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불쾌하게 하거나 제 3자를 즐겁게 하기도 한다.[41] 풍자의 경우보다 훨씬 비열하게 비꼬는 경우의 골계인 사캐즘(Sarcasm)이 있

39) Yonehara Mari(米原万里)(2007), 『유머의 공식』, 이현진 옮김, 중앙 Books, 156쪽.
40) 박영원(1996), 앞의 논문, 240쪽.
41) Yonehara Mari(米原万里)(2007), 위의 책, 621~623쪽.

다. 보다 공격적이 되면 조롱과 야유, 조소, 비난 등 비우호적인 성격을 띠며, 높은 위치에서 대상과 대립한다. 풍자 문학의 경우 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지적 문학이며 따라서 예리한 비판 의식을 토대로 한다.[42] 이를 통하여 문학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일컬을 수 있다.

2.3.5. 조롱

제도보다는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 유머이다. 남을 빈정거리며 놀리는 말이나 몸짓인데, 풍자의 비열한 정도가 심해지면 야유로 변질될 수 있다.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을 뜻한다. 웃음에 '비웃음'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퀸틸리안 M. F의 말을 인용하면 웃음에서 비웃음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다. 비웃음의 대상도 희극적인 대상이 되며, 이 대상은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우리는 희극적 혹은 재미있게 만들어진 것을 읽고 웃는다.[43] 풍자와 조롱은 얼핏 사회 비판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인 유머를 펼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풍자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실을 긍정적으로 고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조롱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아냥거리거나 비웃으며 기분 나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

재담은 위와 같이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재담이 있는가 하면, 말놀이와 기지, 또는 기지, 과장, 조롱이 함께 나타나는 재담도 있다. 말놀이에서 조롱에 이르기까지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태도와 분위기, 재담을 듣는 대상과 개선 의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개정 23종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수록된 재담의 담화와 글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42) 이상근(2002), 앞의 책, 621~623쪽 참조.
43) 류종영(2005), 앞의 책, 19쪽.

3.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담 교육의 이해와 특성

2007년 2월,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10년 만에 국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중심의 국어교육 지향',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담화와 글의 생산·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교육 내용의 타당성·적정성·연계성 강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를 들고 있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로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 지식과 기능의 쓰임은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이 평가되므로, 언어활동에 역사성, 사회성, 윤리성을 부여하고, 언어활동이 갖는 관계성, 소통성, 대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비판적, 성찰적인 언어 학습자를 형성하는 데 맥락 강조의 목적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실제 범주는 언어활동 목적을 기준으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제7차 교육과정의 '친교'라는 범주명을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본질'을 '지식'으로, '원리'를 '기능'으로 바꾸었다. '실제'는 성취 기준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실제 범주를 구성하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은 언어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지식', '기능', '맥락'은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해당하며, 내용 요소는 실제, 즉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지식, 기능, 맥락을 의미하며, 학년별 내용에 제시한 '내용 요소의 예'는 이들 세 가지 범주

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지식'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을 의미하고, 하위 요소로 소통의 본질, 담화 특성, 매체 특성을 포함한다. '기능'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하며, 하위 요소는 영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을 의미하고, 하위 요소로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지식, 기능,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긴밀하게 교섭하고 상호 작용한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을 국어 교육 내용의 중심으로 보고, 이에 작용하는 맥락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맥락'을 새로운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 지도할 수 있도록 '실제'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 체계 구성의 기본 관점, 범주의 의미 및 범주 간의 관계에 따라 구성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어과의 내용 체계>[44]

- 듣 기 -

듣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설득하는 말 듣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 - 정서 표현의 말 듣기	
지 식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 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말 하 기 -

말하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하기 - 설득하는 말 하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하기 - 정서 표현의 말 하기	
지 식 ○ 소통의 본질 ○ 담화 특성 ○ 매체 특성	**기 능**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
맥 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44) 교육인적자원부(2007), 「내용」,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 3쪽.

본 장에서는 23종 7학년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을 도표로 정리하였다.[45] 아래 도표에서 보듯 2장에서 이미 다룬 재담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교과서별로 볼 때 국어와 생활국어가 연계된 부분을 특히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 7학년 국어 · 생활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의 유형별 현황

재담의 유형 / 교과서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
교학사 (김)	생활국어	○	○	○	○	×
교학사 (남)	생활국어	○	○	○	○	×
금성 (윤)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대교 (박)	생활국어	○	○	△	○	○
대교 (왕)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두산 (우)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디딤돌 (김)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디딤돌 (이)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미래엔 (윤)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미래엔 (이)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박영사 (송)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비상 (조)	국어	○	○	○	○	×
새롬 (권)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웅진 (이)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45) 표에서 ○는 재담의 유형과 일치를, △는 부분 일치를, ×는 불일치를 의미한다.

좋은책 (이)	생활국어	○	○	○	○	○
중앙 (이)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지학사 (방)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지학사 (이)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창비 (김)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천재 (김)	생활국어	○	○	○	○	○
천재 (노)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천재 (박)	국어	○	△	○	○	○
해냄 (오)	국어	○	○	○	○	×
	생활국어	○	○	○	○	×

23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활국어를 함께 포함시킨 결과 총 39책이 되었다. 재담 단원이 국어 및 생활국어에 함께 구현된 교과서는 16종, 국어에만 나타난 교과서는 2종, 생활국어에만 제시된 교과서는 4종이다.

본고에서는 조롱 부분의 유형을 가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과정에서 2장에서 분류한 재담의 유형을 근거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조롱에 대한 유형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3.1. 재담 교육의 특성

7학년 재담 교육 내용은 듣기 영역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듣기의 실제와 지식, 기능,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듣기의 실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담은 특히 '정서 표현의 말 듣기'[46]이다. 더불어 청자의 필요

46) 재담의 언어 사용 목적은 정서 표현에 있으므로 재담의 듣기를 '정서 표현의 말 듣기'로 표현하였다.

조건인 화자도 마찬가지로 '정서 표현의 말 하기'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도 빼 놓을 수 없다. 듣기와 말하기는 사회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듣기의 지식은 듣기·말하기 소통의 본질과 재담 담화의 특성, 재담을 관통하는 매체의 특성을 익힌다. 듣기의 기능은 내용 확인과 추론, 평가와 감상이 있다. 재담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웃음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감상적 듣기'와 동시에 '공감적 듣기'가 요구된다.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는데 재담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담을 할 때에도 사회·문화적 맥락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때에는 '분석적 듣기'를 하여 재담의 사회적 사회 비판적 기능을 파악하고 재담의 궁극적인 목적과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이제 학년별 내용에서 성취 기준[47]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취 기준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국어 능력의 내적·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성취 기준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성취 기준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 기준은 ① 담화 또는 글의 유형+② 주요 내용 요소(지식, 기능, 맥락)+③ 행동(분석, 해

이에 '주의 집중하기', '분석적 듣기', '감상적 듣기', '공감적 듣기'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주의 집중하기'란 바른 자세로 화자를 쳐다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생각을 차단하고 청취를 하는 목적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감상적 듣기'란 즐거움을 얻고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락적 목적으로 듣는 듣기이다.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내용을 충분히 감상한다.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입하여 들으면서 화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청자는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한 반응이나 화자에 대한 협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석적 듣기'란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능동적인 듣기 방법이다. (최미숙 외 7인, 2008: 144~145 참조.)

4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해당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은 학습자가 국어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였다. 지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내용'보다는 '성취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2009),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3쪽 각주.

석, 평가, 조사 등)을 결합하여 진술한다. 둘째, 성취 기준은 개별적인 지식, 기능, 맥락보다는 한 편의 담화 또는 글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는 활동에 맞추어 기술한다. 셋째, 성취 기준에 포함되는 지식, 기능, 맥락 관련 내용 요소는 해당 담화 또는 글을 생산, 수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요소로 한다. 넷째,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실행 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48]

다음으로는 학년별, 영역별 담화와 글의 유형을 선정한 원리이다. 첫째, 언어 활동 목적별(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로 대표성을 지니는 담화·글, 둘째,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담화·글, 셋째,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사회생활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담화·글을 선정한다.[49]

학년별 담화·글의 배열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 담화·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소재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친숙하고 가깝고 구체적인 소재를, 고학년에서는 낯설고 멀고 추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주제 혹은 내용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친숙하고 간단한 주제를, 고학년에서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도록 한다. 둘째, 텍스트의 형식성, 공식성을 고려하여 저학년에서는 비형식적, 비공식적 담화·글을, 고학년에서는 형식적, 공식적 담화·글을 제시한다. 셋째, 동일한 언어 활동 목적을 공유하면서 담화·글의 유형을 세분화하기 어렵고 학습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담화·글은 소재, 주제, 학습 내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제시한다.[50]

내용 요소는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내용 요소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인

48) 교육부(2009), 앞의 책, 23쪽 참조.
49) 교육부(2009), 앞의 책, 23쪽 참조.
50) 교육부(2009), 앞의 책, 23쪽 참조.

‘지식’, ‘기능’, ‘맥락’에서 각각 선정하였다. 각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서 1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성취 기준의 성격, 특성에 따라 1개 이상 선정된 경우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당 3~4개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시 순서는 ‘지식→기능→맥락’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내용 요소는 하나의 예시로서 교실 단위의 교수·학습 장면에서 구체화, 상세화, 간략화 할 수 있으며 교체·통합·변형도 가능하다.[51]

이에 따라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에 설정된 재담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7학년에 설정된 재담 교육 내용은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에 제시되어 있다. 그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52]

51) 교육부(2009), 앞의 책, 24쪽.
52) 교육부(2009), 앞의 책, 28쪽.

【7-듣-(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53]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이 성취 기준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재담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재담의 [㉢ 긍정적 가치와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다.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하더라도 재치 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라 할 수 있다.
재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 즉, 발상과 의미 측면에서 재담을 분석하여 무엇이 웃음의 동력이었는지를 분석하게 한다.
재담 속에 담긴 웃음은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때때로 재미있는 말에는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들어 있어서 [㉣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지만 때로는 그 속에 담긴 비판은 직접적인 비판의 표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재미있는 말은 [㉤ 즐거움 제공]**과 비판이라는 양면적 성질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재미있는 말을 들을 때는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지도**한다.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 중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는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⑷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담화의 수준과 범위】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담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 중에서 재담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에서 재담은 대중매체를 통해 활성화되므로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온 재담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의 목적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는 7학년 교과서에 구현되는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53) 밑줄 표시, 굵은 표시, 괄호 표시, 문단 변형은 연구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부터 ㉤까지는 2장에서 2.2.2. '재담의 기능'을 언급하는 데에 참고하였다. '㉠ 사회적 기능, ㉡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대, ㉢ 긍정적 가치와 의의, ㉣ 사회 비판 기능, ㉤ 즐거움 제공'은 각각 재담의 사회적 기능, 창의적 기능, 긍정적 효과의 기능, 사회 비판적 기능, 즐거움 제공의 기능으로 반영되었다. (본고 18쪽.)

재담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 경험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재담의 긍정적 가치와 의의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학습 활동 단계 중에서 읽기 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내용 요소의 예는 학습 활동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며 특히 본격적인 학습 활동에 해당되는 읽기 후 활동(목표 학습, 이해 학습)을 전개하고 자기 평가 단계까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 중 '재담'의 정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머 텍스트' 대신 '웃음'이나 '재담', '풍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 중 '재담'의 정의

6학년 읽기 (4) 해설	웃음을 유발하는 글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쓰인 글이다. 익살이나 농담, 재담, 콩트, 우스개 이야기 등과 같이 해학, 기지, 유머(humor), 아이러니(irony) 등의 기법으로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중략) 웃음 유발의 글은 필자와 독자의 관계, 소통 상황, 분위기, 주제의 성격 등 맥락에 따라 그 쓰임이나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고 극대화될 수도 있다.[54]
7학년 듣기 (4) 해설	재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다.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치 있게 사람의 웃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재담 속에 담긴 웃음은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때때로 재미있는 말에는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들어 있어서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55]
8학년 읽기 (5) 해설	풍자물은 개인 또는 사회의 악덕, 모순, 어리석음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개선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예술 형식이다.[56]
9학년 말하기 (4) 해설	재담은 본래 탈놀이, 판소리 같은 전통 연회에서 광대나 소리꾼이 연행의 흥취를 돋우기 위하여 들려주는 우스갯소리이다. 재담은 전문 예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널리 소통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터넷 공간이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말하기의 형태로 향유되고 있다.[57]
선택 과목 「화법」 내용의 담화 유형 중 대화 ④ 해설	유머나 재담은 개인적 대화나 공적 말하기 상황에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유머는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과 관련되는 '우스개', '익살', '해학'으로서, 오늘날에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남녀노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담은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러한 말을 가리키는데, 본래는 탈놀이, 판소리 같은 전통 연희에서 광대나 소리꾼이 연행의 흥취를 돋우기 위하여 들려주는 우스갯소리를 뜻한다.[58]

위와 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6학년 읽기 영역, 7학년 듣기 영역, 8학년 읽기 영역, 그리고 선택과목 <화법> 담화 유형 중 '대화'를 보면 재담의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재담은 대체로 웃음을 유발하는 글이며, 과거에는 전통 연회에서 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우스갯소리였다가, 최근에는 인터넷,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종류의 말하기 형태로 향유된다. 익살이나 농담, 재담, 콩트, 우스개 이야기 등과 같이 해학, 기지, 유머(humor), 아이러니(irony) 등의 기법과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으로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담에 대한 정의가 학년마다 중구난방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교수자 및 학습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6학년에서는 풍자를 언급하지 않고 7학년과 8학년에서는 풍자와 그에 관련된 사회 비판적 기능을 언급한다. 반면 9학년에서는 재담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며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해학에 치중한다. 10학년 선택 과목 화법에서는 여태까지의 내용을 포괄하여 종합

54)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3: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142쪽.
55)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8쪽.
56) 교육부(2009), 위의 책, 63쪽.
57) 교육부(2009), 위의 책, 84~85쪽.
58)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미래엔(대한교과서), 152쪽.

적이나 그 정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재담의 지식 부분을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는 것이 교수자 및 학습자의 입장에서 탁월한 학습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중 재담 교육 내용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학급별 학년,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담화 수준과 범위, 그리고 연계지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3]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 중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59]

학년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담화 수준과 범위	연계지도
6	읽기	(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	①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②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③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④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	웃음을 유발하는 글; 웃음 유발 자체가 글의 장르적 속성이 되며, 익살, 농담, 재담, 콩트, 유머, 민담 등. 풍자물과 블랙 유머 등은 제외. 다양한 종류와 형식, 다양한 매체 가능	
7	듣기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①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②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③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담; 일상의 대화중에서 재담 요소가 많은 부분이나, 현대 사회의 대중매체인 인터넷, 텔레비전의 재담 활용 가능	내용 요소 ② 는 6학년 읽기 영역과 가능
8	읽기	(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① 매체 특성과 풍자물의 표현 방식 이해하기	대상의 본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풍자물;	

59)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3: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142쪽 참조.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8, 63, 84~85쪽 참조.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미래엔(대한교과서), 152쪽 참조.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② 생산자와 수용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통념 파악하기 ③ 풍자물에 담긴 현실 비판의 내용과 비판 방식에 대해 평가하기 ④ 풍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의하기	풍자 대상의 본질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여 표현한 풍자물을 제시하되, 문학 작품, 책이나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실린 다양한 글이나 만화, 텔레비전의 코미디나 시사 프로그램의 한 부분, 인터넷의 풍자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선정하여 제시	
9	말하기	(4)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학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재담에 활용한다.	① 해학의 구조와 표현 특징 이해하기 ② 우리나라 해학 문화의 전통 이해하기 ③ 전통 해학을 재담에 활용하기	해학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재담; 민담, 설화, 고소설, 판소리, 탈놀이 등에 사용된 재담을 직접 재연하거나, 소재를 찾아 재구성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짧은 재담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 속에 재담을 섞어 가며 말하기	7 학년 듣기 영역과 가능
선택과목	화법	④ 유머와 재담 등을 활용하여 대화한다.			9 학년 말하기 영역과 가능

재담 교육에 필요한 담화와 글의 수용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형식적이고 본질적이며 명제적인 지식은 읽기 활동을 통한 수용이 용이하고, 재담 교육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은 재담 담화나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듣고 말하면서 웃어 보고 직접 재담을 체험하며, 재담을 들을 때 상상력과 함께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자신만의 언어로 창의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올바른 유머를 구사하는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재담 교육에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적인 맥락을 짚어내는 것 또한 기본적인 것이다. 이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맥락'이 강조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어과 교육에서 맥락의 강조는 재담 교육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담 교육 학년별 내용은 크게 읽기와 듣기, 말하기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6학년(읽기), 7학년(듣기), 8학년(읽기), 9학년(말하기), 10학년(화법: 듣기・말하기)로 구성된다. 성취 기준별로 제시된 재담 담화 및 글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자 익히는 내용 요소의 예가 추가되어 재담 교육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면서 세밀한 교수 · 학습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학년에 따른 영역 구분을 보면 읽기 → 듣기 → 읽기 → 말하기 → 화법(듣기・말하기) 순이다. 결국, 재담이 소통과 적극적인 반응이 필수적인 음성언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재담 교육에 대한 인지적 · 정의적 접근을 한다면, 읽기 활동을 통해 먼저 재담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학습자가 실제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재담의 음성언어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담에 대한 정의가 학년마다 중구난방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교수자 및 학습자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학년마다 강조하는 재담의 특성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도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테면 6학년에서는 풍자를 언급하지 않고 7학년과 8학년에서는 풍자와 그에 관련된 사회 비판적 기능을 언급한다. 반면 9학년에서는 재담의 본래 의미를 강조하며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해학에 치중한다. 10학년 선택 과목 화법에서는 여태까지의 내용을 포괄하여 종합적이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명제적인 지식 부분이 이렇게 설정된 관계로 나머지 '내용 요소의 예'와 '담화 수준의 범위' 또한 각각 해당 학년 부분은 논리적으로 짜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별 학년과 그에 따른 영역 설정은 재담 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비교적 잘 부합하고 있으므로, 국어과 교재에서 재담 단원을 구현할 때에는 이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학급별 학년 위계성 및 계열성에 어긋나므로, 이로 인해 재담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

는 기본적인 국어과 교육 목표마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어 교육의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2007 개정 교육과정 재담 교육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준으로 재설정하였다.

[표 4]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6학년·7학년 재담 교육 내용

학년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담화 수준과 범위	연계지도
6	읽기	(4)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	①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②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③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④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	웃음을 유발하는 글; 웃음 유발 자체가 글의 장르적 속성이 되며, 익살, 농담, 재담, 콩트, 유머, 민담 등. 풍자물과 블랙 유머 등은 제외. 다양한 종류와 형식, 다양한 매체 가능	
7	듣기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①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②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③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담; 일상의 대화중에서 재담 요소가 많은 부분이나, 현대 사회의 대중매체인 인터넷, 텔레비전의 재담 활용 가능	내용 요소 ②는 6학년 읽기 영역과 가능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는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이다. 즉, 재담 교육의 목적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를 바탕으로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의 내용 요소로는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 요소 중에서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는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인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와 연계하여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7학년 재담

단원의 학습 활동을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이 반영된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60] 예시

<table>
<tr><td colspan="2">목적: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 · 의미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고 · 상상력 확대코자 설정</td><td>7-듣-(4)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학습 목표: 재담을 듣고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학습 활동 단계</td><td>학습 활동 내용</td></tr>
<tr><td>중점: 재담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 경험 위해 교수·학습 활동 계획하되, 특히 재담의 긍정적 가치 · 의의를 인식 · 파악하는 데 중점</td><td>읽기 전 활동</td><td>◎ 만약 내가 이 문구를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그때 기분은 어떨까?</td></tr>
<tr><td rowspan="2">(3) 학습활동계획 (내용 요소)

①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②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연계)
(①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②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td><td>이해와 적용</td><td>이해와 적용
[활동 1] 재담은 때때로 당연하다고 짐작하는 바를 뒤엎음으로써 재미를 준다. 그러한 재담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다음 만화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1.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손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2. 상식을 뒤엎는 손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활동 2] 다음 대화에서 상호와 정태의 말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td></tr>
<tr><td>수행하기</td><td>수행하기
[활동 1] 재담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며 활동을 해 보자.
1. 수업 시간에 들었던 선생님의 재담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자.
2. 선생님이 재담을 하실 때 친구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각각 써 보자.
(1) 적절했던 반응:
(2) 적절하지 않았던 반응:
[활동 2] 내가 학급 회장(또는 시장이나 대통령 등) 선거에 출마하여 유세한다고 가정하고, 활동을 해 보자.
1.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인지 생각해 보자.
2. 위에서 말한 공약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3.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재담이 넘치는 간단한 연설문</td></tr>
</table>

60) 남미영 외 11인(2009), 생활국어 1-2, (주) 교학사, 105~114쪽.

		을 써 보자. [활동 3] 다음은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들려준 자신의 경험담이다. 읽고, 활동을 해 보자. 1. 장미란 선수의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2.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나의 경험담을 적어 보자. 3.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 들려준 재담을 소개해 보자. [활동 4] 다음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일부이다. 보고, 활동을 해 보자. 1. 위 장면의 빈 말풍선을 자유롭게 채워 보자. 2. 영화를 본 다음, 촌장의 대사가 웃음을 주는 이유를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3. 그 재담이 어떤 면에서 비판의 기능을 하는지 써 보자.
③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④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 ③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스스로학습	스스로학습 [활동 1] 여러 가지 재담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담을 만들어 보자. 1. 다음은 초보 운전을 재미있게 표현한 문구이다. 내가 초보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재담을 이용하여 새롭고 재미있는 문구를 만들어 보자. 2. 왼쪽에 우리 반의 급훈을 적고, 오른쪽에는 새로운 급훈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써 보자. [활동 2] 책이나 영화에서 재미있는 재담을 찾아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친구에게 알려 주고 싶은 재미있는 재담을 주변에서 찾아 써 보자. 2. 위 재담이 웃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3] 재담의 쓰임을 생각하며 활동을 해 보자. 1. 인터넷 게시판에서 좋은 재담을 찾아 쓰고, 재미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함께 써 보자. (1) 재담: (2) 이유: 2. 인터넷 게시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재담을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함께 써 보자. (1) 재담: (2) 이유:
	확인활동	특성 가. 재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다. 웃음을 일으키는 형태적 요소는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완전한 이야기 형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재치 있게 웃음을 유발시키는 재미있는 말이라면 재담이다. (① 재미있는 말의 종류 이해하기, ②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나. 재담 속에 담긴 웃음은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적 분

		위기를 반영한다. 때때로 재미있는 말에는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들어 있어서 사회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지만 때로는 그 속에 담긴 비판은 직접적인 비판의 표현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① 재미있는 말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확인활동 ◎ 관용 표현이나 재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표를 해 보자. □ 관용 표현과 재담은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해 준다. □ 재담에 비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 □ 남을 지나치게 낮추더라도 웃음이 있다면 훌륭한 재담이다. □ 재담을 들을 때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 ◎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나를 점검해 보자. 3 재담의 발상을 이해할 수 있다. 상 중 하 4 재담에 대하여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상 중 하 5 생활에서 재담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라는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의 목적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이는 7학년 교과서에 구현되는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담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 경험 위해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재담의 긍정적 가치·의의를 인식·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학습 활동 단계 중에서 읽기 전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내용 요소의 예는 학습 활동 계획을 하는 데에 있어 각 문항별 기준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학습 활동에 해당되는 읽기 후 활동(목표 학습, 이해 학습)을 전개하고 자기 평가 단계까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각 성취 기준에 제시된 담화·글을 수준과 범위의 측면에서 한 단계 구체화하여 진술하였고,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한 담화·글의 유형은 네

가지 언어활동 목적에서 각각 선정한 것이다.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제시된 담화·글은 1)학습자가 성취 기준에 도달한 결과 수용·생산할 수 있는 담화·글, 2)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담화·글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성취 기준과 차례대로 대응한다. 제시한 담화 또는 글은 하나의 예시로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다른 담화나 글을 다룰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언어활동의 목적, 성취 기준, 학습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61]

그리하여 7학년 듣기 영역 재담 단원 담화의 수준과 범위[62]로는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담'으로,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중에서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 재담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현대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TV 등의 대중매체에 나온 재담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리에서부터 단어, 어구, 하나의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 웃음을 일으키고 당대의 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사회 비판적인 기능을 지닌 재담이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바탕으로 재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언어활동을 위해 재담 교육내용의 지식과 기능, 재담의 여러 활동을 익히도록 한다. 지식·기능은 주로 읽기 활동을 통해서, 재담을 맥락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듣기·말하기 활동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은 당연히 실제 언어생활에서 당면할 상황에 주체적이고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풍자나 아이러니 등을 통하여 상황 맥락에 따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또한 재담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국어 생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

61)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23~24쪽 변용.
62) 교육부(2009), 위의 책, 28쪽 참조.

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언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자가 국어 활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유머를 올바르게 구사한다면 학습자 스스로 보다 창조적인 국어 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태도를 지향하게 된다. 재담 교육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접근을 한다면 먼저 재담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재담 담화와 글을 비판적인 사고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좋다. 비교적 수용하는 특징이 강한 듣기 및 읽기 영역, 수용하기 보다는 생산하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말하기·쓰기 영역과 연관 지어 본다면, 생산을 위한 수용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수용하는 태도, 즉 듣고 읽는 것을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언어를 기발하게 사용하여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3.2.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단원의 실제

여기서는 개정 국어과 23종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단원을 대상으로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 재담 단원의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 학습 목표에 대한 분석과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담 단원의 실제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3.2.1.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 분석

재담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대로 각 교과서에 설정된 재담 단원의 영역이 잘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 각 교과서에 설정된 재담 단원의 대단원과 소단원이 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재담 단원이 국어 교과서 및 생활국어 교과서에 구현된 여부도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담 단원이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 중에서 어떤 교과서에 설정되어 있

는지,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 모두에 설정되어 있다면 대단원 및 소단원 명은 일치하는지, 단원명은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 재담 교육의 목적을 얼마나 잘 나타내었는지 등의 여부를 찬찬히 살펴볼 것이다.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는 전통적으로 문종 중심, 주제 중심, 목표 중심의 구성 방식이 있다.[63] 문종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글의 종류(장르)에 따라 단원이 구성된다. 이는 제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 사용된 방식으로, 교과서 각 단원과 단원을 구별하는 기준은 시, 일기, 수필과 같은 글의 종류이며, 한 단원을 한 단원으로 결속하는 기제도 글의 종류이다. 문종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의 장점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문종 학습이 가능하고 교과서 글 제재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문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내용을 반영하기 힘들어서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64]

주제 중심 단원 구성은 단원 간 단원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주제가 되는 방식이다. 제 2, 3차 교육과정기 교과서가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언어 행위는 무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며, 주제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주제 학습을 하면 국어과의 교과적 특수성을 잃게 되어 다른 교과들과 구별하기 힘들 수 있고, 의사소통 능력 계발이라는 국어과 고유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되며, 또한 특정한 가치와 사상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65]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목표가 단원 간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된다. 제

63)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78쪽.
64) 최미숙 외(2008),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65~66쪽 참조.
65) 최미숙 외(2008), 위의 책, 66~67쪽 참조.

1, 5, 6, 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가 목표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한 단원 안에 함께 구성된 소단원들은 글 제재의 가치관이 다르거나 문종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목표를 기준으로 한 단원에 제시되는 것이다. 학습 목표는 대체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년별 내용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므로,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며, 그만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과정을 전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다. 하지만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체계적으로 잘 짜인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탓에 오히려 실제적인 언어 학습 경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칫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66]

이제 7학년 교과서에 구현된 재담 단원이 6개 영역 중에서 어떠한 영역에 설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7학년 재담 단원이 구현된 교과서의 설정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개정 7학년 국어 교과서에 설정된 재담 단원의 영역 현황

영역별		출판사별	총계
가. 듣기		교학사 (김) 생활국어, 좋은책 (이) 생활국어	2 종류
나. 듣기 · 말하기		금성 (윤) 생활국어, 웅진 (이)	2 종류
다. 듣기 · 문법		교학사 (남), 대교 (왕), 미래엔 (윤), 박영사 (송), 새롬 (권), 지학사 (방), 지학사 (이), 천재 (김) 생활국어	8 종류
라. 듣기 · 말하기 · 문법		창비 (김), 천재 (노)	5 종류
마. 듣기 · 문학		대교 (박) 생활국어, 디딤돌 (김), 디딤돌 (이), 미래엔 (이), 해냄 (오)	2 종류
바. 듣기 · 문법 · 문학		중앙 (이), 천재 (박) 국어	2 종류
기타	**사. 말하기 · 쓰기**	두산 (우) 국어	1 종류
	생활 · 맥락 · 통합	두산 (우) 생활국어	

66) 최미숙 외(2008), 위의 책, 67~68쪽 참조.

	아. 읽기 · 쓰기	비상 (조) 국어	1 종류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7학년 재담 단원의 기본 영역은 듣기 영역이다. 재담 단원을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6개 영역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영역을 기존의 듣기 영역과 통합하여 통합 학습을 전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다양한 영역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듣기 영역이 대체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교과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듣기만 단독으로 설정된 교과서는 2종류이고, 듣기와 밀접한 말하기가 통합된 교과서도 2종류이다. 듣기와 문법이 통합된 교과서는 압도적으로 많은데, 8종류나 된다. 듣기와 말하기, 문법의 세 영역이 통합된 교과서는 2종류이다. 다음으로 듣기와 문학이 통합된 교과서는 5종류로, 듣기와 문법이 통합된 교과서 다음으로 많다. 듣기와 문법, 문학이 통합된 교과서는 2종류이다. 기타로 분류된 교과서의 영역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 읽기와 쓰기 영역이 통합된 경우이고, 출판사 자체적으로 생활과 맥락, 통합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이들을 결합하여 설정한 것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학습 목표, 학습 활동 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정 7학년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에 구성된 재담 단원을 앞서 분류하였던 해당 영역에 따라 들여다보도록 한다.

[표 7] 개정 7학년 국어 · 생활국어 교과서에 구성된 재담 단원 현황

영역별	교과서		학기	수록 단원	
가. 듣기	**교학사 (김)**	생활국어	1	4. 웃음으로 풀어가는 세상 (1) 재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 파악하기 (2) 재담의 사회 비판적 기능 파악하기	
	좋은책 (이)	생활국어	2	5. 다양한 이해, 열린 소통 (1) 재담을 찾아서 (2) 적절하게 반응하며 재담 듣기	
나. 듣기 · 말하기	**금성**	국어	2	2. 유쾌한 대	(2) 웃음을 주는 이야기

	(윤)	생활국어		화	선택 (2)
	웅진 (이)	국어	2	6. 생각을 바꿔 봐요	(2) 재미있게 말해요
		생활국어			선택 (3) 재미있는 말의 효과 알기 선택 (4) 재치 있게 말 주고받기
다. 듣기 · 문법	교학사 (남)	생활국어	2	4. 재미있는 우리말 (2) 재담과 친해지기	
	대교 (왕)	국어	1	6. 바른 말 재미있는 말	(3) 관용 표현과 재담
		생활국어			(2) 재미있는 말 즐기기
	미래엔 (윤)	국어	2	3. 재미있는 우리말	(3) 우리말의 재미있는 표현
		생활국어			(2) 생활 속의 재담
	박영사 (송)	국어	2	7. 우리말의 표현과 재미	(1) 재미있는 말의 기능 (2) 재미있는 말의 발상
		생활국어			(1) 재미있게 말하기
	새롬 (권)	국어	2	4. 삶을 넉넉하게 하는 말 (1)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세상	
		생활국어			
	지학사 (방)	국어	2	2. 우리말의 세계	(3) 흥부전
		생활국어			(3) 재미있는 말, 재담
	지학사 (이)	국어	2	4. 지혜가 담긴 말, 웃음을 주는 말	(2) 익숙한 것을 뒤집는 발상
		생활국어			(2) 재담의 발상과 의미 파악
	천재 (김)	생활국어	1	1. 말의 묘미 (1) 재미있는 말과 언어생활 (2)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3) 재미있는 말에 적절히 반응하기	
라. 듣기 · 말하기 · 문법	창비 (김)	국어	1	4. 말에 담긴 슬기	(2) 웃음을 부르는 말과 글과 웃음
		생활국어			(2) 생활 속의 재치 있는 말
	천재 (노)	국어	2	2. 더불어 이야기하자 (1) 재미있는 이야기	
		생활국어			
마. 듣기 · 문학	대교 (박)	생활국어	1	1. 글과 말의 즐거움 (2) 재미있는 말과 이야기	
	디딤돌 (김)	국어	2	2. 역사와 이야기	(3) 박타령
		생활국어			(2) 재미있는 말 즐기기
	디딤돌 (이)	국어	1	1. 우리말의 맛과 멋	(4) 민 영감 이야기
		생활국어			(2) 재담의 발상과 표현
	미래엔 (이)	국어	2	4. 문학을 통한 여행	(3) 절 배우기
		생활국어			(2) 재미난 이야기와 말놀이
	해냄 (오)	국어	2	1. 말의 맛과 멋 (2) 재미있는 말	
		생활국어			

바. 듣기 · 문법 · 문학		**중앙 (이)**	국어	2	1. 이야기의 즐거움 (1) 웃음을 찾아서 (3) 이야기 읽는 재미	
			생활국어			
		천재 (박)	국어	2	5. 선인들의 삶과 언어 (2) 밥타령	
기타	**사. 말하기 · 쓰기**	**두산 (우)**	국어	2	1. 너와 나를 이어 주는 대화	(1) 재담에 이런 재미가
	생활 · 맥락 · 통합		생활국어			(1) 말로 즐거움을 나누어요 (2) 재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3) 나누면 커지는 기쁨
	아. 읽기 · 쓰기	**비상 (조)**	국어	2	3. 한국인의 말 (1) 재미있는 말	

위의 표에서와 같이 듣기를 기본 영역으로 하고 그 외 듣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과 연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타로 분류한 교과서는 듣기가 제외된 영역으로 구분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재담 단원을 듣기 영역으로 설정한 교과서

먼저 재담 단원을 듣기 영역만으로 설정한 교과서는 모두 생활국어이며, 교학사 (김)의 대단원명은 '웃음'과 '세상'이라는 단어로 재담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을 하고 있고, 소단원명은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와 내용 요소 중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책 (이)의 대단원명은 재담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이고, 소단원명에서는 직접적으로 '재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재담 단원임을 분명히 하면서 내용 요소 중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으므로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을 하고 있다.

나. 재담 단원을 듣기・말하기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듣기 및 말하기 영역을 통합하여 설정한 교과서는 2종류이며 재담 단원이 국어 및 생활국어에 모두 구현되고 있다. 금성 (윤)의 대단원명은 '유쾌한 대화'로 주제와 문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소단원명은 '웃음을 주는 이야기'로, 재담과 함께 말하기 영역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웅진 (이)의 대단원명은 '설득하는 것'이 주제임을 예상할 수 있다. 소단원명에서 '재미있는 말의 효과 알기'는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의 내용 요소 중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와 연계된 8학년 읽기 성취 기준 (4)의 내용 요소 중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와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에서 '웃음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말하기 영역과 듣기 영역의 통합이므로 읽기 영역의 내용 요소까지 구현할 것이라는 짐작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 다른 소단원명은 '재치 있게 말 주고받기'이고, 이는 재담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재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듣고 말하는 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 학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 재담 단원을 듣기・문법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듣기 및 문법 영역을 통합하여 설정한 교과서는 모두 8종이고, 그 중에서 재담 단원이 생활국어에만 구성된 교과서는 교학사 (남)과 천재 (김)이다. 8종 모두 '재미있는 말', '재미있는 우리말', '우리말의 재미' 등으로 재담 단원임을 나타내고 있고, 대교 (왕)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과 국어의 소단원명, 지학사 (이)의 대단원명을 보면, 함께 구현된 관용 표현 소단원, 즉 문법 영역이 통합 설정되었다는 것을 단원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

한편 교학사 (남) 생활국어 소단원명과 대교 (왕) 국어 소단원명, 미래엔

(윤) 생활국어 소단원명, 지학사 (방) 국어 및 생활국어 소단원명, 지학사 (이) 생활구어 소단원명 등을 통해 '재담'이라는 문종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학사 (방) 국어 소단원명은 '흥부전'으로 어떠한 문종인지 텍스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학사 (방)의 경우 대단원명이 '우리말의 세계'이고 소단원명이 '흥부전'인데 이를 보고 재담 교육을 중심으로 학습할 것이라고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밖에도 박영사 (송) 국어 소단원명인 '재미있는 말의 기능', '재미있는 말의 발상'이나, 지학사 (이) 생활국어 소단원명인 '재담의 발상과 의미 파악', '익숙한 것을 뒤집는 발상', 천재 (김) 생활국어의 소단원명인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히 반응하기' 등은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으로 짜여 있음을 알 수 있다.

8종을 통틀어서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에 '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교과서는 없다. 그리고 '친해지기', '즐기기', '표현', '즐거운' 등의 말이나 '삶을 넉넉하게 하는', '언어생활'이라는 말 등을 통하여 재담의 언어 사용 목적이 '정서 표현'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듣기·문법 통합 영역이 설정된 8종의 교과서 중에서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이 완전히 일치하는 교과서는 새롬 (권)뿐이다. 그만큼 국어와 생활국어의 단원 학습의 연계성이 긴밀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라. 재담 단원을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먼저 창비 (김)의 대단원은 '말에 담긴 슬기'로, '말'은 듣기와 말하기, '슬기'는 문법적 요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국어의 소단원명 '웃음을 부르는 말과 글과 웃음'은 평범한 말과 글이 웃음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과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재담에 대한 반응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생활국어의 소단원명 '생활 속의 재치 있는 말'은 생활국어에 걸맞게 재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듯하다.

천재 (노) 교과서는 앞서 듣기·문법 영역에서 다루어진 새롬 (권)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단원명은 '더불어 이야기하자'로, '더불어'라는 단어는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둘 이상의 사회 속에서 가능한 대화이므로 쓴 것이라 여겨지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은 다른 교과서들의 단원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청유형으로, 듣기와 말하기, 관용 표현이 해당되는 문법까지 포함하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소단원명 '재미있는 말과 이야기'는 교육과정 내용에 있는 '소리에서부터 큰 서술에 이르기까지'라는 재담의 정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재담 단원을 듣기·문학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문학 영역을 통합하게 되면 문학 특성상 문종 중심의 단원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디딤돌 (김) 국어의 소단원명 '박타령'이나, 디딤돌 (이) 국어의 소단원명 '민 영감 이야기', 미래엔 (이) 국어의 소단원명 '절 배우기' 등이 그것이다. 제재 텍스트명이 그대로 드러나면 어떠한 이야기를 배울 것인지 알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것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는 짐작하기 힘들다. 즉, 위와 같은 소단원명만 보고는 재담 단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이어서 단원명을 보고 문학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짐작 가능한데, 대교 (박)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글과 말의 즐거움'과 소단원명 '재미있는 말의 이야기', 디딤돌 (김)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역사와 이야기', 미래엔 (이)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문학을 통한 여행', '재미난 이야기와 말놀이'에서 '글'이나 '이야기', '역사', '문학' 등의 단어를 통하여 그러하다.

디딤돌 (이)와 해냄 (오)의 대단원명은 '말의 맛과 멋'이라는 부분이 공통

적으로 들어가며, 이것이 디딤돌 (김)의 '즐기기'라는 표현과 더불어 재담의 언어 사용 목적이 '정서 표현'이라는 주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디딤돌 (이) 생활국어의 소단원 '재담의 발상과 표현'은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5종의 교과서 중에서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이 일치하는 교과서는 해냄 (오) 교과서로, 앞서 등장했던 새롬 (권), 천재 (노)와 같이 국어 및 생활국어의 단원 연계성이 다른 교과서들에 비하여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바. 재담 단원을 듣기・문법・문학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듣기・문법・문학 영역을 통합한 교과서는 중앙 (이) 국어 및 생활국어와 천재 (박) 국어이다. 두 교과서 모두 단원명만을 보고는 듣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중앙 (이) 교과서는 앞서 언급했던 새롬 (이), 천재 (노), 해냄 (오)와 같이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국어 및 생활국어의 단원 연계성을 기대해봄직하다. 대단원명의 '이야기'와 소단원명의 '이야기'라는 단어로 말과 문학을 아우를 수 있다. 또한 대단원의 '즐거움'과 소단원명의 '웃음', '재미'를 보면 재담 단원임을 알 수가 있다. 다만 소단원명에서 '읽는'이라는 표현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문학 영역이기 때문인지, 문학 텍스트는 읽는 활동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천재 (박) 국어의 대단원은 '선인들의 삶과 언어'로, '선인들의 삶'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우리네 삶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관용 표현이나 전통 재담을 제재로 삼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이어지는 '소리와 말과 글'이라는 뜻을 포함한 '언어'라는 단어는 적절하다. 그러나 소단원명 '밥타령'은 문학이라는 문종을 알 수는 있지만 정작 대단원명인 '선인들의 삶과 언어'와 소단원명을 보면 재담을 배우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듣기 및 문학 영역에서 언급했던 디딤돌 (김), 디딤돌 (이), 미래엔 (이)와 마찬가지로 소단원명을 작품 제재명으로 그대로 할 경우에는 대단원명을 해당 영역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테면 단원명에 '재담'이나 '웃음', '재미', '재미있는' 등의 단어를 써서 재담 단원임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 재담 단원을 말하기・쓰기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앞에서 소개된 교과서들은 전부 개정 교육과정의 7학년 듣기 성취기준 (4)에서 설정한 대로, 재담 단원을 교과서에 구현할 때 기본적으로 듣기 영역으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산 (우)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것과는 달리, 재담 단원을 구현할 때 듣기 영역이 아닌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통합하기도 하였다. 두산 (우) 교과서에 실제로 표기된 영역은 국어와 생활국어가 차이가 있다.

생활국어는 개정 교육과정의 6개 영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생활・맥락・통합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대단원은 '너와 나를 이어주는 대화'로 말하기 영역에서 '대화'를 따온 듯하다. 국어의 소단원명은 '재담에 이런 재미가'라고 하여 '재담'이라는 단어로 재담 단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국어에서는 소단원이 3개인데 재담 학습 내용이 3개의 소단원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소단원을 보면, '즐거움', '재치 있는 말', '기쁨' 등을 통해 재담 단원임을 알 수 있는데, 소단원이 각각 차례대로 생활・맥락・통합과 연결된다.

아. 재담 단원을 읽기・쓰기 영역으로 통합 설정한 교과서

비상 (조) 국어 교과서도 두산 (우)와 마찬가지로 듣기 영역을 배제하고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재담 단원에 설정하고 있다. 대단원명은 '한국인의 말'이고, 소단원명은 '재미있는 말'이며, 소단원명을 통해 재담 단원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두산 (우)와 같이 7학년 듣기 재담 단원을 해당 성취 기준과 다르게 설정하면, 교육과정에서 학년별·영역별로 제시한 재담 교육의 목표에서 멀어지고, 기대되는 학습 효과 및 효율성 등이 떨어지며, 학년별 위계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학년에서 재담 단원을 교과서에 구현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담 단원을 살펴본 결과, 문종 중심과 주제 중심,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종 중심이라고 하면 대개 '재담'과 관련된 단어가 제시되고, 간혹 문학 영역과 통합 학습을 하는 경우 문학 제재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은 주로 재담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재담 교육의 언어 사용 목적에 맞게 정서적인 표현으로 구현되고 있고,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은 교육과정의 의도와 학습 목표가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학년 듣기 재담 단원의 영역을 교육과정에서 학년별·영역별로 제시한 해당 성취 기준과 다르게 설정하게 되면, 재담 교육의 목표와 거리감이 생기고, 기대되는 학습 효과 및 효율성 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학년별 위계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년에서 재담 단원을 교과서에 구현할 때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는 교수자 및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준거가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든 학교 수업이든 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운용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국어 수업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3.2.2.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분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67] 특히 학습 목표는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

67)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수 · 학습 운용」,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거이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점이 되는 것이므로, 재담 단원을 학습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재담 교육의 학습 목표를 뚜렷이 하여야 재담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3.1. 재담교육의 특성'에서 제시하였듯이, 7학년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은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이다. 즉, 재담 교육의 목적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사고와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함이고,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를 바탕으로 설정 되어야 하므로, 23종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각각의 학습 목표가 성취 기준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이와 더불어 내용 요소 중에서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와 연계된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인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를 참고하여 볼 수 있다.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

위의 6학년 읽기 영역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의 경우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 중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유의하도록 한다. 개정 7학년 국어 및 생활 국어 교과서에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7-89호) 참조.

가. 듣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듣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8] 듣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교학사 (김)	생활국어	4. 웃음으로 풀어가는 세상 (1) 재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 파악하기 (2) 재담의 사회 비판적 기능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을 안다. · 재담을 듣고, 재미있는 말의 발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좋은책 (이)	생활국어	5. 다양한 이해, 열린 소통 (1) 재담을 찾아서 (2) 적절하게 반응하며 재담 듣기	· 재담의 발상과 기능을 파악한다. · 재담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듣는다.	

듣기 영역이 단독으로 설정된 교과서는 교학사 (김) 생활국어와 좋은책 (이) 생활국어이다. 두 교과서 모두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인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를 학습 목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내용 요소의 예 중에서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도 공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교학사 (김)에서는 내용 요소의 예 중에서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도 학습 목표에 제시하였다. 두 교과서 모두 듣기 영역만을 단독으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게 듣기 활동이 두드러지는 내용 요소를 목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교과서 모두 재담 단원이 생활국어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다.

나. 듣기・말하기 영역이 통합되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듣기・말하기 영역이 통합되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9] 듣기・말하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table>
<tr><th colspan="2">교과서</th><th colspan="2">수록 단원</th><th>학습 목표</th><th>교육과정 내용</th></tr>
<tr><td rowspan="2">금성(윤)</td><td>국어</td><td rowspan="2">2. 유쾌한 대화</td><td>(2) 웃음을 주는 이야기</td><td rowspan="2">・재담의 원리와 의미를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다.</td><td rowspan="3">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td></tr>
<tr><td>생활국어</td><td>선택 (2)</td></tr>
<tr><td rowspan="2">웅진(이)</td><td>국어</td><td rowspan="2">6. 생각을 바꿔봐요</td><td>(2) 재미있게 말해요</td><td rowspan="2">・재미있는 말의 효과를 알고 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td></tr>
<tr><td>생활국어</td><td>선택 (3) 재미있는 말의 효과 알기
선택 (4) 재치 있게 말 주고받기</td></tr>
</table>

듣기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인 말하기 영역이 통합되어 대단원을 이룬 금성(윤)의 ‘재담의 원리와 의미를 이해’한다는 진술 부분은 성취 기준에 부합하며, ‘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말하기 영역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웅진 (이)의 학습 목표는 ‘재미있는 말의 효과를 알고’라는 목표 설정이 성취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재담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듣고 말하며 의사소통하는 실질적인 언어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듣기・문법 영역이 통합되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듣기・문법 영역이 통합되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0] 듣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table>
<tr><th colspan="2">교과서</th><th colspan="2">수록 단원</th><th>학습 목표</th><th>교육과정 내용</th></tr>
<tr><td rowspan="2">교학사(남)</td><td>생활국어</td><td colspan="2">4. 재미있는 우리말 (2) 재담과 친해지기</td><td>· 관용 표현과 재담의 개념 및 효과를 안다.
· 관용 표현과 재담의 실례를 통하여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상황에 맞게 관용 표현과 재담을 활용할 수 있다.</td><td rowspan="5">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td></tr>
<tr><td rowspan="2">대교(왕)</td><td>국어</td><td rowspan="2">6. 바른 말 재미있는 말</td><td>(3) 관용 표현과 재담</td><td>·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td></tr>
<tr><td>생활국어</td><td>(2) 재미있는 말 즐기기</td><td>·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다.</td></tr>
<tr><td rowspan="2">미래엔(윤)</td><td>국어</td><td rowspan="2">3. 재미있는 우리말</td><td>(3) 우리말의 재미있는 표현</td><td>·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td></tr>
<tr><td>생활국어</td><td>(2) 생활 속의 재담</td><td>–</td></tr>
<tr><td rowspan="3">박영사(송)</td><td>국어</td><td rowspan="3">7. 우리말의 표현과 재미</td><td>(1) 재미있는 말의 기능
(2) 재미있는 말의 발상</td><td rowspan="2">·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 일상생활에서 재담이나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td></tr>
<tr><td>생활국어</td><td>(1) 재미있게 말하기</td></tr>
<tr><td>새롬</td><td>국</td><td colspan="2">4. 삶을 넉넉하게 하</td><td>·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td></tr>
</table>

(권)	어 생활국어	는 말 (1)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세상		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지학사 (방)	국어	2. 우리말의 세계	(3) 흥부전	·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생활국어		(3) 재미있는 말, 재담	· 재담에서 웃음을 이끌어 내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 재담에 담긴 사회 비판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 실생활에서 재담을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지학사 (이)	국어	4. 지혜가 담긴 말, 웃음을 주는 말	(2) 익숙한 것을 뒤집는 발상	· 나는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다.	
	생활국어		(2) 재담의 발상과 의미 파악		
천재 (김)	생활국어	1. 말의 묘미 (1) 재미있는 말과 언어생활 (2)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3) 재미있는 말에 적절히 반응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고, 재미있는 말에 적절히 반응한다. · 되풀이하는 말의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듣기 영역과 통합된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통합된 영역은 문법 영역으로, 23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39책) 중에서 8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14책)에 7학년 문법 영역의 '관용 표현'이 재담 단원과 함께 소단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재담과 관용 표현은 그 성격과 기능이 비슷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상황 맥락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듣기와 문법 영역 또한 통합 학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8종 교과서 중에서 교학사 (남) 생활국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7종의 학습 목표에서는 듣기 성취 기준 (4)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교학사

(남) 생활국어의 경우 '재담의 개념 및 효과를 안다.'라는 진술로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다. 내용 요소인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도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 우선 '듣는다.'라는 진술은 대교 (왕) 생활국어에서, '적절히 반응한다.'라는 진술은 천재 (김) 생활국어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다.'라는 진술은 지학사 (이) 국어 및 생활국어에서 구현되고 있다. 재담 학습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진술은 교학사 (남) 생활국어, 박영사 (송) 국어 및 생활국어, 지학사 (방) 생활국어, 천재 (김) 생활국어의 학습 목표에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학사 (남) 생활국어와 박영사 (송) 국어 및 생활국어의 목표 설정은 소단원으로 통합 설정된 관용 표현을 함께 진술하여 듣기와 문법 영역 간의 통합 학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1]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창비 (김)	국어	4. 말에 담긴 슬기	(2) 웃음을 부르는 말과 글과 웃음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재미있는 말의 발상을 파악할 수 있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
	생활국어		(2) 생활 속의 재치 있는 말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다.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재미있는 말의 창의적인 발상을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천재	국	2. 더불어 이야기하		・재담을 듣고 재미있는 말의	

(노)	어 생 활 국 어	자 (1) 재미있는 이야기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듣기 영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말하기 영역, 그리고 관용 표현으로 나타난 문법 영역까지 세 영역이 통합된 교과서는 창비 (김)과 천재 (노) 국어 및 생활국어로, 성취 기준 (4)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비 (김)의 경우, 국어 및 생활국어 모두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국어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게 되므로 '재미있는 말의 발상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만, 생활국어에서는 더 나아가 '적절하게 반응하며 듣고', '창의적인 발상을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창비 (김)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서로 보완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천재 (노) 국어 및 생활국어에서도 '재담을 듣고'라는 진술을 통해 듣기 활동을 언급하고 있으나, 학습 목표에 '사회적 기능' 등과 관련된 다른 내용 요소나 재담의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이 비교적 단순하게 진술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천재 (노) 교과서는 국어 및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및 소단원명이 일치하며 학습 목표 또한 일치하여, 국어 및 생활국어의 재담 교육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2]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대교 (박)	생활국어	1. 글과 말의 즐거움 (2) 재미있는 말과 이야기		· 재담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디딤돌 (김)	국어	2. 역사와 이야기	(3) 박타령	·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활국어		(2) 재미있는 말 즐기기		
디딤돌 (이)	국어	1. 우리말의 맛과 멋	(4) 민영감 이야기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생활국어		(2) 재담의 발상과 표현		
미래엔 (이)	국어	4. 문학을 통한 여행	(3) 절 배우기	· 재미있고 재치 있는 말의 발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생활국어		(2) 재미난 이야기와 말놀이	· 말소리를 이용한 말놀이를 할 수 있다. · 이야기의 재미를 발견하고, 직접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 재담에 담긴 웃음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해냄 (오)	국어	1. 말의 맛과 멋 (2) 재미있는 말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생활국어				

대단원 영역으로 듣기·문학을 설정한 5종의 교과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성취 기준 (4)인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가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및 생활국어 모두 재담 단원이 설정된 4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9책) 중에서 디딤돌 (김), 디딤돌 (이), 해냄 (오)는 국어 및 생활국어 간의 학습 목표 진술 내용

이 완전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엔(이)의 경우, 국어에서는 '말의 발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표현'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고, 생활국어에서는 내용 요소의 예 중에서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여 언급하고 있다. 생활국어의 학습 목표 진술 내용을 더 살펴보면, '말소리를 이용한 말놀이를 할 수 있고', '이야기의 재미를 발견하고, 직접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에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담이 간단한 말소리부터 여러 문장으로 틀이 짜인 이야기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5종 교과서 모두 듣기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아쉽지만, 미래엔 (이) 교과서에서 실질적으로 말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재담 교육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듣기·문법·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듣기·문법·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3] 듣기 · 문법 · 문학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중앙(이)	국어	1. 이야기의 즐거움 (1) 웃음을 찾아서 (3) 이야기 읽는 재미	· 재미있는 말의 본질과 그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 이야기 문학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과 재미를 이해한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생활국어		·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웃음을 찾아보고 우스개를 만들 수 있다. · 여러 이야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천재 (박)	국어	5. 선인들의 삶과 언어 (2) 밥타령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듣기·문법·문학 영역이 설정된 2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3책) 중에서 성취 기준 (4)가 그대로 학습 목표에 반영된 교과서는 천재 (박) 국어이다. 반면 중앙 (이) 국어 및 생활국어의 학습 목표를 보면 대체로 문학 영역의 내용을 드러내었다. 국어의 목표 진술 중 '재미있는 말의 본질과 그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부분에서 모호한 느낌을 주는 '본질'보다는 성취기준 그대로 '발상'이나 '의미'를 쓰는 것이 더 분명한 뜻을 전달한다고 보고, '이야기 문학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과 재미를 이해한다.'라는 또 다른 진술은 문학 영역에 치우친 것이라고 여겨진다.

중앙 (이) 생활국어의 목표 진술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웃음을 찾아보고 우스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재담을 실생활에서 접하는 것뿐 아니라 재담을 직접 만들어보도록 하여, 생활국어에 걸 맞는 목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이야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진술을 앞의 진술과 덧붙여보면, 앞서 다루었던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미래엔 (이) 생활국어 학습 목표 중 '이야기의 재미를 발견하고, 직접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진술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므로 중앙 (이) 생활국어 역시 미래엔 (이) 생활국어와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 중 '재담이란 말소리에서부터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통하여 이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담을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교육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4]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두산 (우)	국어	1. 너와 나를 이어 주는 대화	(1) 재담에 이런 재미가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상대와 상황에 적절한 표현과 말하기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생활국어		(1) 말로 즐거움을 나누어요 (2) 재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3) 나누면 커지는 기쁨)	·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다. · 재담에 담겨 있는 발상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두산 (우) 교과서는 말하기 단원과 재담 단원을 대단원에 함께 구현하면서,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아닌,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통합하였다. 물론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므로 서로 통용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면밀히 살펴보면 두 활동 영역의 지식 이해와 원리, 기능, 실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우) 국어의 학습 목표를 보면, 듣기 영역의 성취 기준 (4)를 그대로 따랐으며, 생활국어 목표 진술부분에도 일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생활

국어에서는 '발상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다시 국어의 목표 진술을 보면, '상대와 상황에 적절한 표현과 말하기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상황 맥락을 강조한 말하기 활동을 언급하고 있고, '적절한 표현과 말하기 방식'에 재담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목표는 생활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진술되고 있는데, 이는 겉보기에 쓰기 활동이 중점이지만 '공감'이나 '격려', '위로'라는 단어는 듣고 말하는 대화에 해당되므로, 결국은 상대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듣기와 말하기, 쓰기 활동이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공감', '격려', '위로' 등은 정서 표현인데, 재담 또한 언어 사용 목적이 정서 표현에 해당되므로 아예 동떨어진 설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산 (우) 생활국어에 실제로 구현된 영역은 생활・맥락・통합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따른 기타 검정교과서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생활'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활동을 생활국어에 맞게 나타낸 것이고, '맥락'은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제시된 국어과의 내용 체계 중 하나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합'은 앞의 '생활'과 '맥락'을 아우르는 통합 학습 활동으로 볼 수 있겠다.

두산 (우) 교과서는 국어 및 생활국어 모두 재담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교육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학습 과정을 펼쳤다고는 하나, 정작 중요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담 단원과 상이한 영역을 설정하여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재담 교육에 말하기 영역을 설정한 학년은 7학년이 아닌 9학년과 선택 과목 <화법>이며, 표면적으로 쓰기 영역을 재담 교육에 설정한 학년은 없다. 오랜 세월동안 여러 차례 학년별・수준별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짜인 교육과정의 제시된 내용을 잘 따르는 것이 곧 학습자를 교육적 목표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방법이므로, 말하기・쓰기 영역이 아닌 듣기・

말하기・쓰기 영역 등으로 수정하여 활동 내용도 교육과정에 잘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읽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

재담 단원이 구현된 개정 23종 교과서 읽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표 15] 읽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과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비상(조)	국어	3. 한국인의 말 (1) 재미있는 말	・ 대단원: 재미있는 말이나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소단원 1에서는 재담의 의미와 기능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말의 발상을 이해한다.) 소단원 1: 옛이야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주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이해한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내용 요소의 예>**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비상 (조) 교과서는 국어에만 재담 단원이 설정되어 있다. 관용 표현이 재담과 함께 소단원으로 설정된 대단원에서는 창의적인 국어 생활을 하도록 하였고, 재담 단원인 소단원 1에서는 설정된 성취 기준과 같이 재미있는 말의 발상을 파악한다고 하였으나, 표면적으로 담화 설정도 옛이야기에 한정하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잘못 설정한 읽기 영역에 의해서 학습 과정 또한 읽기 활동에 치우쳐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담 단원이 읽기 영역으로 설정된 학년은 6학년과 8학년이며, 7학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두산 (우)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

에 제시된 '7학년 재담 단원은 듣기 영역에 설정'하는 내용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읽기 쓰기 영역이 아닌, 관용 표현과 재담에 맞게 듣기·문법 등의 영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정 국어과 교과서인 검정 교과서 23종(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39책)에 설정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해당된 개정 교육과정의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와 그에 따른 내용 요소의 예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 등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내용 요소 중에서 '재미있는 말의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교과서는 교학사 (김) 생활국어, 미래엔 (이) 생활국어, 창비 (김) 국어 및 생활국어이고, '재담의 기능'으로 언급한 교과서는 비상 (조) 국어, 좋은책 (이) 생활국어가 있다. '사회 비판 기능'으로는 지학사 (방) 생활국어, '재미있는 말의 종류 이해하기'는 창비(김) 국어 및 생활국어에 반영되어 있다.

성취 기준과 같은 맥락인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는 다른 내용 요소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로 구현되었는데, 대다수의 학습 목표가 이에 해당한다. 그대로 반영한 경우는 대교 (박) 생활국어, 대교 (왕) 국어 및 생활국어, 디딤돌 (김) 국어 및 생활국어, 디딤돌 (이) 국어 및 생활국어, 미래엔 (윤) 국어, 미래엔 (이) 국어 및 생활국어, 박영사 (송) 국어 및 생활국어, 비상 (조) 국어, 새롬 (권) 국어 및 생활국어, 지학사 (방) 국어, 지학사 (이), 창비 (김) 국어, 천재 (김), 천재 (노) 국어 및 생활국어, 천재 (박) 국어, 두산 (우) 국어 및 생활국어, 해냄 (오) 국어 및 생활국어이다. '발상과 의미' 대신 '원리와 의미'로 표현한 금성 (윤) 국어 및 생활국어, '본질과 문화적 의미'로 나타낸 중앙 (이) 국어는 의미상으로는 통하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대체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는 교학사 (김) 생활국어, 좋은책 (이) 생활국어, 지학사 (이) 국어 및 생활국어, 창비 (김) 생활국어, 천재 (노) 국어 및 생활국어에 나타나 있다.

내용 요소 중에서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와 연계된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 (4)인 ‘웃음을 유발하는 글을 읽고 표현의 익살스러움과 재미를 느낀다.’를 참고하여 살펴 볼 수도 있다. 6학년 읽기 영역의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의 예는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표현상의 특성 이해하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의 효과 평가하기’,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인데, 이중에서 ‘웃음의 효과를 알고 즐기는 태도 기르기’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교과서는 교학사(남) 생활국어, 두산 (우) 국어 및 생활국어, 미래엔 (이) 국어 및 생활국어, 박영사 (송) 국어 및 생활국어, 비상 (조) 국어, 웅진 (이) 국어 및 생활국어, 중앙 (이) 생활국어, 지학사 (방) 생활국어, 창비 (김) 생활국어, 천재 (김) 생활국어로, ‘재담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의미로 재해석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재담 단원의 학습 활동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재담 교육이 재담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재담 교육의 학습 내용이 학습 목표에 따라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서서 일련의 언어 사용 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학습 활동을 통하여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맥락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68]이 학습 활동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읽기

68) 강미영(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과서 반영 양상에 대한 고찰: 중학교 1학년 『생활국어』,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6쪽.

전 활동과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이루어진 재담 교육의 학습 활동을 각 교과서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에 설정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7학년 재담 교육 내용의 해당 영역인 '듣기 영역'의 특성이 학습 활동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은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이고,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설정된 재담 교육의 목적은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사고력과 상상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재담이 왜 재미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지 학습자가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재담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와 동시에 재담을 할 수 있는 상황 맥락을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재담을 만들어 봄으로써 상상력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은 '재담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되, 특히 재담의 긍정적 가치와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성취 기준에서 특히 중점을 둔 내용은, 재담 단원의 학습 활동 중에서 '읽기 전 활동'에 대체로 적용되어 진술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재담 단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본격적으로 계획하는 데에는 이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의 예가 그 기준점이 된다. 즉, 일반적으로 소단원의 본문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는 '읽기 중 활동'이, 재담 단원에서는 그러한 형태 보다는 '읽기 중 활동'에 내용 요소의 예가 각 항목으로 제시되고, 내용 요소의 예로 나타난 각 항목에 따라 주어지는 제재가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재담 단원의 학습 활동을 살펴볼 때에는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며, 각 교과서의 재담 단원 학습 활동이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구현했는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가 아무리 학년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위계성을 띄고 그것

이 교수 학습 과정에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대표한다고 할지라도, 재담 교육에 요구되는 활동이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몇 가지 준거를 세워 23종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다. 이를테면 각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에 부합하는지, 듣기 활동은 어떻게 구현하는지, 매체와 관련된 재담 활동이 전개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가. 듣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 영역이 단독으로 설정된 교과서는 교학사 (김)과 좋은책 (이)이며, 두 교과서 모두 생활국어에만 재담 단원이 구현되어 있다.

먼저 교학사 (김) 생활국어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맥락'이 하나의 제시어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학습 활동의 항목들이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에 부합하며, 활동의 문항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다. 특히 듣기 활동은 다섯 번이나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좋은책 (이) 생활국어는 학습 활동의 항목이 개정 교육과정에 충실한 편이나, 활동의 문항수가 적은 편이다. 듣기 활동은 두 번이고, 자기점검이 활동에 비해 꼼꼼하게 많은 양이 서술되어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

나. 듣기・말하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말하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금성 (윤) 국어 및 생활국어와 웅진 (이) 국어 및 생활국어이며, 국어 및 생활국어에 구현된 까닭에, 국어와 생활국어에 나타난 재담 단원 학습 활동의 연계성 여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먼저 금성 (윤) 국어 및 생활국어는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재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어에서는 인터넷 관련 재담이 언급되어 있고, 생활국어는 활동의 문항 수가 적다.

웅진 (이) 국어는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듣기 활동이 구현되지 않았고,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듣기 활동도 나타나지 않는다. 웅진 (이) 국어 및 생활국어의 재담 단원 학습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 듣기 · 문법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교학사 (남), 천재 (김)으로 생활국어에만 재담 단원이 구현된 교과서 2종과, 대교 (왕), 미래엔 (윤), 박영사 (송), 새롬 (권), 지학사 (방), 지학사 (이)로 국어 및 생활국어에 재담 단원이 구현된 교과서 6종을 더한 총 8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14책)이다. 재담 단원이 생활국어에만 구현된 경우 그 2종의 교과서끼리 살펴보고, 국어 및 생활국어에 구현된 경우에는 국어와 생활국어에 나타난 재담 단원 학습 활동의 연계성 여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교학사 (남) 생활국어는 교수·학습 과정 중에 '듣기'를 하지 않고 '들었던'이라는 식으로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회상적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형 진술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듣기 활동은 한 번에 그치고, 인터넷 관련 재담 활동을 포함하며, 활동의 문항수가 적은 편이다.

천재 (김)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에 비교적 부합하고 있으며, 듣기 활동 또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학습 활동의 문항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다. 재담의 제재도 적절하고, 인터넷 관련 재담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대교 (왕) 국어 및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듣기 활동은 각각 한 번에 그치고 있고, 둘 다 학습 활동의 문항수가 적으며, 생활

국어는 매체 위주의 활동으로 인터넷 관련 재담 활동이 구현되고 있다.

미래엔 (윤) 국어 및 생활국어는 듣기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교육과정을 잘 따르고 있고, 재담의 제재 또한 적절하다.

박영사 (송) 국어는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TV 관련 재담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듣기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듣기 활동은 나타나고 있으나 학습 활동이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새롬 (권) 국어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재담의 이론적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으며 듣기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발표 활동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생활국어는 듣기 활동이 두 번 정도 구현되고 있고, 교육과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지학사 (방) 국어는 듣기 활동이 나타나지 않고 재담 제재 텍스트 분석 위주의 내용이나 재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생활국어는 모둠 활동과 발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어 및 생활국어 모두 학습 활동의 문항수가 적은 편이다.

지학사 (이) 국어는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듣기 활동은 세 번 나타나고 있으며, 재담 제재는 부분적으로 적절하고, 학습 활동의 문항수가 적은 편이다. 생활국어는 실제 활동 중심이며, 듣기 활동이 한 번 나타나고 있고, 듣기를 가정하여 구연하는 활동과 모둠 활동이 구현되고 있다. 학습 활동의 문항수는 대체로 적절한 편에 속한다.

라.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말하기・문법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금성 (윤) 국어 및 생활국어와 웅진 (이) 국어 및 생활국어이며, 국어 및 생활국어에 구현된 까닭에, 국어와 생활국어에 나타난 재담 단원 학습 활동의 연계성 여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창비 (김) 국어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담 교육 내용을 재해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듣기 활동은 한 번 나타나고 있다. 재담 제재는 고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국어는 듣기 활동이 세 번 나타나며, 현대의 재담도 제재로 나타나고 있으나 7학년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천재 (노) 국어는 교육과정에 매우 충실하며, 듣기 활동은 네 번 나타나고 있고, 현대물이 고전 작품보다 많은 편이다. 생활국어는 듣기 활동이 세 번 나타나고, 모둠 활동이 구현되고 있으며, 개그 재담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는 활동이 있다. 고전 작품이 현대물보다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국어와 생활국어가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대교 (박)으로 생활국어에만 구현된 교과서 1종과, 디딤돌 (김), 디딤돌 (이), 미래엔 (이), 해냄 (오)로 국어 및 생활국어에 구현된 교과서 4종을 더한 총 5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9책)이다. 국어 및 생활국어에 구현된 경우에는 국어와 생활국어에 나타난 재담 단원 학습 활동의 연계성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교 (박)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고, 듣기 활동은 두 번 나타나고 있으나, 재담 제재가 대체로 재담의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다.

디딤돌 (김) 국어는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고, 듣기 활동은 세 번 나타나고 있고, 재담 제재 텍스트 위주의 활동으로 구현되어 있다.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비교적 잘 반영하였고 학습 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문항 수가 많은 편이며, 특히 듣기 활동은 네 번으로 국어보다 많다. 인터넷 관련 재담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

디딤돌 (이) 국어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학습 활동의 문항수가 적으며, 듣기 활동은 한 번 나타나고 있고, 재담 제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고, 듣기 활동이 세 번 나타나고 있으나, 재담 제재가 적절하지 못하다. TV 개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가 등장한다.

미래엔 (이) 국어 및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일부 반영하고 있고, 듣기 활동이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 국어는 어느 정도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생활국어는 부분적으로 실제 활동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고, 국어에는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관련 제재가 나타난다.

해냄 (오) 국어 및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고, 학습 활동도 전반적으로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 대체로 요즘의 세태와 관련된 재담 제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활국어에는 인터넷 관련 재담 제재가 나타난다. 국어에는 예닐곱 번 정도의 듣기 활동이 구현되어 23종 국어 교과서 중에서 듣기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고, 생활국어에도 듣기 활동이 세 번 나타나고 있다. 천재 (노) 교과서와 더불어 국어와 생활국어 간의 연계성이 두드러지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바. 듣기・문법・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문법・문학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중앙 (이) 국어 및 생활국어와 천재 (박) 국어로 2종의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3책)에 구현되어 있다.

먼저 중앙 (이) 국어 및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듣기 활동도 구현되지 않았으며, 재담 제재도 적절하지 못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을 교수・학습 활동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천재 (박) 국어는 교육과정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으나 듣기 활동은 나타나지 않고, 고전 재담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여 효과적인 재담 학습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사.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 영역이 아닌 말하기 · 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두산 (우) 국어이며, 생활・맥락・통합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이 설정된 생활국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두산 (우) 국어 및 생활국어는 교육과정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재담의 제재가 부분적으로 적절하며 설정된 영역에 따라 듣기 활동은 전무하다. 비록 '맥락'과 '통합 교육'이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이지만, 그럼에도 생활국어에 설정된 생활・맥락・통합이라는 영역은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6개 영역(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 읽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의 학습 활동

7학년 국어 교과서의 재담 단원에 듣기 영역이 아닌 읽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교과서는 비상 (조) 국어이다. 앞서 다루었던 말하기・쓰기 영역이 설정된 두산 (우)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영역이다. 교육과정은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나 잘못된 영역 설정에 따라 듣기 활동이 아예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작품이 재담 제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3종 국어 교과서 중에서 교육과정의 의도가 학습 활동에 잘 드러난 교과서는 교학사 (김) 생활국어, 좋은책 (이) 생활국어, 천재 (김) 생활국어, 미래엔 (윤) 국어 및 생활국어, 새롬 (권) 국어 및 생활국어, 천재 (노) 국어 및 생활국어, 대교 (박) 생활국어, 해냄 (오) 국어 및 생활국어, 천재 (박) 국어 비상 (조) 국어로, 모두 10종(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14책)이다. 반면에 교육과정이 소극적으로 반영된 교과서는 금성 (윤) 국어 및 생활국어, 디딤돌 (이) 국어 및 생활국어, 중앙 (이) 국어 및 생활국어, 두산 (우) 국어 및

생활국어로, 모두 4종(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8책)이다.

학습 활동에 듣기 활동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교과서는 웅진 (이) 국어 및 생활국어, 박영사 (송) 국어, 새롬 (권) 국어, 지학사 (방) 국어 및 생활국어, 중앙 (이) 국어 및 생활국어, 천재 (박) 국어, 두산 (우) 국어 및 생활국어, 비상 (조) 국어로, 8종(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12책)이다. 즉, 23종(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39책)의 교과서 중에서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실질적으로 듣기 활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담 제재를 글로 읽으면서 감상할 때의 차이와 들으면서 감상할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활동'이 4종의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다. 디딤돌 (김) 국어는 목표 활동에서는 '<박타령>을 읽으며 감상할 때와 들으면서 감상할 때의 차이를 서로 이야기해 보자.', 디딤돌 (이) 생활국어에서는 '다음 이야기를 듣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가)는 글로 읽을 때보다 들으면 더 재미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디딤돌 (김) 생활국어에서는 '<꼬부랑 할머니>를 글로 읽어 보고, 소리로 들었을 때와 그 차이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천재 (김) 생활국어에서는 '다음은 판소리 <흥보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활동을 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도움말: 이야기의 내용이 재미있어서인지, 아니면 말하는이가 재치 있게 표현을 해서인지에 대해 생각합니다.)'라고 재담을 왜 읽지 않고 들어야 하는지 학습 활동을 통해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즉, 재담 중에서도 특히 말놀이(언어유희)를 눈으로 읽거나 학습자가 소리내어 읽었을 때에는 스스로 발음할 때의 즐거움에 따라서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지만 귀로 직접 듣는 소리보다는 리듬감이 덜하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로 들었을 때에는 글의 내용 파악보다 소리가 날 때의 흥겨움에 더욱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재담 중에서도 특히 말놀이의 묘미를 느끼려면 읽기 활동 보다는 듣기 활동을 하는 것이 재담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더욱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7학년 듣기 성취 기준에 설정된 '담화 수준과 범위'[69]에 따라 매체와 관련된 재담 학습 활동이 구현되기도 하는데, 두산 (우) 국어에서는 선택 활동이나 다름없는 발전 활동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신문,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보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소개해 보자.'라고 하여 재미있는 이야기 내용과, 실린 매체, 재미를 유발하는 요소, 이야기의 의미 또는 교훈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금성 (윤) 국어, 교학사 (남), 대교 (왕), 디딤돌 (김), 박영사 (송), 중앙 (이), 천재 (김), 해냄 (오) 생활국어의 활동 일부 혹은 선택 활동에 나타나고 있다.

개정 23종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담 교육 내용이 지식과 기능, 맥락에 맞게 구현되고, 영역을 통합하여 통합 학습을 하는 교과서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용 활동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이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즉 적절히 반응하여 듣는 활동과 재미있게 말하고, 재미있게 소리 내어 읽고, 상상하여 재미있게 쓰는 표현 활동이 어느 교과서나 빠지지 않고 실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배운 것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자기 점검 학습 부분에서는 재담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아 볼 수 있게 그 내용의 위치를 명시한 점이 인상 깊다. 아울러 국어와 생활국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충 학습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어서 교수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수업 전개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69) 교육부(2009: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에 제시된 재담의 담화 수준과 범위는 '재치와 유머가 있는 재담'으로,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 중에서 재담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는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현대 사회에서 재담은 대중매체를 통해 활성화되므로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온 재담을 활용할 수 있다. (3.1. '재담 교육의 특성', 본고 35, 38, 41, 44쪽.)

3.3. ‘국어’와 ‘생활국어’에 수록된 재담 교육 연계성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교과서는 2009년 4월 검정 최종 결과가 발표되어 23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다. 단 한 종류의 국정교과서에서 국어 및 생활국어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각 4책씩 총 92책인 23종 검정교과서 중 한 종류의 검정교과서를 각 학교가 선택하여 2010년부터 교실 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각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각 출판사의 연구에 따른 다양한 교재 구성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어’와 ‘생활국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책 체제를 어떻게 하는가는 영역 통합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가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간에 연계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는 점은 검정 기준 Ⅱ조 2항에 명시된 부분으로,[70] 23종 모두 교과서에 실린 안내의 글에 밝히고 있다. 그 양상은 크게 몇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71]

[표 16] 개정 7학년 국어 · 생활국어 16종 교과서 재담 단원의 학습 목표 현황

교과서		학기	수록 단원		학습 목표	영역
금성 (윤)	국어	2	2. 유쾌한 대화	(2) 웃음을 주는 이야기	· 재담의 원리와 의미를 이해하며 대화를 할 수 있다.	말하기 · 듣기
	생활국어			선택 (2)		
대교 (왕)	국어	1	6. 바른 말 재미있는 말	(3) 관용 표현과 재담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문법 · 듣기
	생활국어			(2) 재미있는 말 즐기기	·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며 듣는다.	듣기 · 문법

70)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지원부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검정기준』, 60쪽.

71) 김정우(2009),「‘국어’ 교과서의 영역 통합 양상 분석: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2호, 한국독서학회, 223쪽 참조.

두산(우)	국어	2	1. 너와 나를 이어 주는 대화	(1) 재담에 이런 재미가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상대와 상황에 적절한 표현과 말하기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말하기 · 쓰기
	생활 국어			(1) 말로 즐거움을 나누어요 (2) 재치 있는 말, 힘이 되는 말 ((3) 나누면 커지는 기쁨)	·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다. · 재담에 담겨 있는 발상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생활 · 맥락 · 통합
디딤돌(김)	국어	2	2. 역사와 이야기	(3) 박타령	·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문학 · 듣기
	생활 국어			(2) 재미있는 말 즐기기		
디딤돌(이)	국어	1	1. 우리말의 맛과 멋	(4) 민 영감 이야기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문학 · 듣기
	생활 국어			(2) 재담의 발상과 표현		
미래엔(윤)	국어	2	3. 재미있는 우리말	(3) 우리말의 재미있는 표현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문법 · 듣기
	생활 국어			(2) 생활 속의 재담	—	
미래엔(이)	국어	2	4. 문학을 통한 여행	(3) 절 배우기	· 재미있고 재치 있는 말의 발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문학 · 듣기
	생활 국어			(2) 재미난 이야기와 말놀이	· 말소리를 이용한 말놀이를 할 수 있다. · 이야기의 재미를 발견하고, 직접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 재담에 담긴 웃음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박영사(송)	국어	2	7. 우리말의 표현과 재미	(1) 재미있는 말의 기능 (2) 재미있는 말의 발상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 일상생활에서 재담이나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듣기 · 문법
	생활 국어			(1) 재미있게 말하기		
새롬(권)	국어	2	4. 삶을 넉넉하게 하는 말 (1)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세상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듣기 · 문법
	생활 국어					

웅진(이)	국어	2	6. 생각을 바꿔 봐요	(2) 재미있게 말해요	· 재미있는 말의 효과를 알고 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듣기 · 말하기
	생활국어			선택 (3) 재미있는 말의 효과 알기 선택 (4) 재치 있게 말 주고받기		
중앙(이)	국어	2	1. 이야기의 즐거움 (1) 웃음을 찾아서 (3) 이야기 읽는 재미		· 재미있는 말의 본질과 그 문화적 의미를 파악한다. · 이야기 문학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과 재미를 이해한다.	문학 · 듣기 · 문법
	생활국어				·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웃음을 찾아보고 우스개를 만들 수 있다. · 여러 이야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듣기 · 문법 · 문학
지학사(방)	국어	2	2. 우리말의 세계	(3) 흥부전	· 재담에 나타난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문법 · 듣기
	생활국어			(3) 재미있는 말, 재담	재담에서 웃음을 이끌어 내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재담에 담긴 사회 비판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재담을 활용하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지학사(이)	국어	2	4. 지혜가 담긴 말, 웃음을 주는 말	(2) 익숙한 것을 뒤집는 발상	· 나는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들을 수 있다.	문법 · 듣기
	생활국어			(2) 재담의 발상과 의미 파악		
창비(김)	국어	1	4. 말에 담긴 슬기	(2) 웃음을 부르는 말과 글과 웃음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재미있는 말의 발상을 파악할 수 있다.	문법 · 듣기 · 말하기
	생활국어			(2) 생활 속의 재치 있는 말	·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다. ·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재미있는 말의 창의적인 발상을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천재(노)	국어 생활국어	2	2. 더불어 이야기하자 (1) 재미있는 이야기		· 재담을 듣고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듣기 · 말하기 · 문법
해냄(오)	국어 생활국어	2	1. 말의 맛과 멋 (2) 재미있는 말		·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	문학 · 듣기

[표 17] 개정 7학년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16종의 연계 현황[72)]

교과서	대단원명 동일	영역 동일	목표 동일	소단원명 동일
금성 (윤)	○	○	○	×
대교 (왕)	○	○	△	×
두산 (우)	○	△	△	×
디딤돌 (김)	○	○	○	×
디딤돌 (이)	○	○	○	×
미래엔 (윤)	○	○	×	×
미래엔 (이)	○	○	×	×
박영사 (송)	○	○	○	×
새롬 (권)	○	○	○	○
웅진 (이)	○	○	○	△
중앙 (이)	○	○	×	○
지학사 (방)	○	○	×	×
지학사 (이)	○	○	○	△
창비 (김)	○	○	△	△
천재 (노)	○	○	○	○
해냄 (오)	○	○	○	○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명 일치 여부를 보면, 23종 교과서 중에서 재담 단원이 국어와 생활국어에 모두 나타난 16종 교과서(국어 및 생활국어 포함 총 32책) 전부 대단원명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중에서도 새롬 (권), 천재 (노), 해냄 (오), 중앙 (이)와 같은 4종의 교과서는 소단원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2) ○는 일치, △는 부분 일치, ×는 불일치를 나타낸다.
김정우, 앞의 논문, (2009: 224)는 '국어'와 '생활국어'간의 연계 상황을 문학 영역을 대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정에 착안하되, 재담 단원에 중점을 두고 개정 23종 교과서 중에서 재담 단원을 수록한 16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대단원명이 일치한다는 것은 국어와 생활국어 교과서의 관계를 대단원별로 대응시켜 연계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3종 교과서 대부분은 교육과정상의 6개 영역 가운데 하나 이상의 영역의 내용(성취기준)을 선택하여 대단원의 학습 목표 및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때 대단원을 구성하는 영역이 국어와 생활국어 사이에 연관이 전혀 없는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응되는 대단원 간에 영역이 다른 경우는 재담 단원이 국어와 생활국어에 모두 구현된 16종 가운데 1종이다. 두산 (우)는 학습 목표 또한 같지 않아서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 사이에 연관성이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단원명이 일치함에도 학습 목표가 다른 경우는 대교 (왕), 미래엔 (윤), 미래엔 (이), 지학사 (방), 창비 (김)이고 학습 목표의 진술 내용을 추가 혹은 삭제하여 그로 인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이 전부 일치하더라도 학습 목표가 다른 교과서는 중앙 (이)이다. 대단원명은 같고 소단원명이 다르지만 학습 목표가 일치하는 경우는 5종으로 금성 (윤), 디딤돌 (김), 디딤돌 (이), 박영사 (송), 웅진 (이)가 있다.

국어와 생활국어의 대단원명과 소단원명, 학습 목표와 영역까지 일치하는 교과서는 새롬 (권), 천재 (노), 해냄 (오)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국어와 생활국어 간에 최대한 긴밀하게 연계 학습을 도모하고 통합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원 구성을 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구현을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어 및 생활국어 간 학습 활동의 연계성 여부는 그 양상이 제각각이다. 이를테면 국어와 생활국어가 겉으로 보기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와, 국어는 이론적 지식 습득 활동, 생활국어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제 적용 활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보완하는 경우, 혹은 국어 및 생활국어의 학습

제재 및 활동이 비슷하여 국어와 생활국어 중에서 둘 중 하나만으로 교수·학습 진행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어는 이론적 지식 습득 활동, 생활국어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제 적용 활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보완하는 경우는 두산 (우), 디딤돌 (김), 디딤돌 (이), 미래엔 (윤), 미래엔 (이), 새롬 (권), 지학사 (방), 창비 (김), 천재 (김), 천재 (노), 해냄 (오) 교과서로, 11종의 교과서이다. 이들은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를 연계 학습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담 교육 내용의 이론적 지식 습득 활동을 강조한다면 국어를 중심으로, 재담 교육 내용을 상황 맥락 속에서 실제 적용 활동을 강조한다면 생활국어를 중심으로 교수 학습 과정을 계획하여 전개하면 될 것이다.

반면에 국어 및 생활국어가 데칼코마니처럼 재담 교육 내용의 이론 지식 내용과 학습 제재, 학습 활동 등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박영사 (송), 중앙 (이) 교과서이다. 이들은 굳이 연계 학습을 하지 않고도 교수자가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국어 또는 생활국어를 선택하여 학습 도구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밖에 아무런 연계성을 찾을 수 없었던 교과서는 금성 (윤), 대교 (왕) 교과서로 재담 교육 내용과는 연관성이 있고 교과서 구성이 빼어나지만 국어 및 생활국어가 제각기 통합 학습을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천차만별이므로, 교수자가 학습자에 맞게 지식, 기능, 맥락 부분을 잘 선별하고 학습 활동을 재구성하여 재담 단원의 교수·학습을 잘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유형별 분석

2007 개정 국어과 교과서 23종 재담 단원에 수록된 재담 담화나 글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담 제재가 수록된 교과서 상의 위치, 재담이 수록된 횟수, 그리고 그 재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8] 2007 개정 7학년 국어 · 생활국어 교과서의 재담 제재 수록 현황

재담 제재	교과서				수록 횟수	재담 유형
	국어		생활국어			
	출판사	수록 위치	출판사	수록 위치		
가게 간판	대교 (왕)	생각 펼치기	미래엔 (윤) 디딤돌 (김) 중앙 (이) 창비 (김)	더 읽을거리 활동 일부 활동 일부 활동 일부	5	말놀이, 기지
나무 노래 (나무 타령)	디딤돌 (이) 미래엔 (윤) 해냄 (오)	단원 길잡이 읽기전 활동 아우르기	두산 (우) 디딤돌 (김) 미래엔 (이) 천재 (김)	선택 학습 활동 일부 활동 일부 선택 학습	7	말놀이, 과장
너 무해. 그럼 난 배추할게.	금성 (윤) 박영사 (송)	소단원 제재 소단원 제재	교학사 (남) 대교 (박) 디딤돌 (김) 창비 (김) 천재 (김)	소단원 제재 활동 일부 활동 일부 논술 활동 활동 일부	7	말놀이, 기지
논어를 아느냐, 통감을 아느냐	–	–	디딤돌 (김) 미래엔 (윤)	종합 활동 활동 일부	2	말놀이, 풍자, 조롱
다듬잇돌 이야기	비상 (조)	들어가며	천재 (노)	활동 일부	2	기지
'달인' (한국방송 개그콘서트 코너)	–	–	대교 (왕) 천재 (김)	활동 일부 활동 일부	2	말놀이, 과장, 풍자
닭을 빌려서 타고 가지 (차계기환)	미래엔 (윤) 비상 (조) 천재 (노)	활동 일부 소단원 제재 활동 일부	대교 (박) 좋은책 (이)	활동 일부 심화 학습	5	기지, 과장
대화가 필요해 (밥 묵자)	박영사 (송) 천재 (노) 해냄 (오)	소단원 전개 활동 일부 소단원 전개	좋은책 (이)	활동 일부	4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매 TV 개그	두산 (우)	활동 일부	디딤돌 (이)	심화 논술	3	말놀이,

체 관 련	프로그램			천재 (노)	심화 학습	(5)	
	인터넷	금성 (윤) 두산 (우) 지학사 (방)	활동 일부 활동 일부 활동 일부	교학사 (남) 대교 (왕) 디딤돌 (김) 천재 (김) 해냄 (오)	스스로 학습 선택 학습 활동 일부 선택 활동 선택 활동	8	기지, 풍자, 과장, 조롱
	TV	두산 (우)	활동 일부	박영사 (송)	활동 일부	2	
비행기 흡연		박영사 (송) 웅진 (이)	소단원 제재 활동 일부			2	기지, 과장, 풍자, 조롱
사오정 시리즈		미래엔 (윤) 비상 (조)	활동 일부 선택 활동	박영사 (송) 좋은책 (이) 해냄 (오)	활동 일부 단원 펼치기 공통 활동	5	기지, 풍자
삶은...달걀		금성 (윤)	소단원 제재	대교 (박)	활동 일부	2	말놀이, 기지
심청가 뺑덕어멈		중앙 (이) 창비 (김)	생각 더하기 활동 일부	–	–	2	과장, 조롱
(월남) 이상재 선생의 해학		대교 (왕) 창비 (김) 천재 (박)	소단원 제재 소단원 제재 활동 일부	–	–	3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
저는 저희 아빠인데요.		디딤돌 (이)	읽기전 활동	교학사 (김)	활동 일부	2	말놀이, 기지
조삼모사 패러디 만화		–	–	미래엔 (윤) 창비 (김)	활동 일부 선택 활동	2	기지, 풍자
지금 이게 무슨 곡입니까? 소고기입니다.		천재 (노)	활동 일부	디딤돌 (이)	활동 일부	2	말놀이, 기지
치과 이야기		해냄 (오)	활동 일부	교학사 (김)	활동 일부	2	기지, 과장, 조롱
하회 별신굿 탈놀이		박영사 (송) 새롬 (권) 천재 (박)	소단원 제재 소단원 제재 선택 학습	–	–	3	말놀이, 풍자, 조롱
할머니의 비밀번호		–	–	교학사 (김) 좋은책 (이)	활동 일부 활동 일부	2	말놀이
판소리 홍보가		디딤돌 (김) 미래엔 (윤) 지학사 (방) 창비 (김) 천재 (박)	소단원 제재 읽기전 활동 소단원 제재 활동 일부 소단원 제재	교학사 (남) 디딤돌(김)천재 (김)	소단원 제재 생각 펼치기 활동 일부	8	말놀이, 과장, 풍자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2장에서 살펴본 재담의 유형인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재의 경우 고전

및 현대물 등 시대를 초월하거나 장르를 초월하여 다양한 재담의 양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했던 재담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에서 언급한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 등을 토대로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4.1. 말놀이가 두드러지는 재담

말놀이는 발음이 비슷한 점을 이용한 것이 많다. 말놀이는 순수하게 웃기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 많아서 누구나 예상할 만한 말놀이만 아니라면, 비교적 쉽게 웃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말놀이가 지나치면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냄 (오) 국어 아우르기 통합 활동에 전래 동요로 제시된 「나무 노래」는 해냄 (오) 국어를 포함하여 23종 교과서에서 총 7회 등장하고 있다. 이 노래는 나무의 이름을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한 전래 동요이다. 여러 가지 나무의 이름을 재미있게 해석하고 운율을 살리며 나열함으로써 단순함을 없애고, 부르는 재미를 더해 준다. 2음보, 4·4조의 운율로 나무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노래로 부르기에 알맞으며, 구전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가사가 전해진다.

<나무 노래>[73]

가자 가자 갓나무 오자 오자 옻나무
가다 보니 가닥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한자 두자 잣나무 다섯 동강 오동나무
십 리 절반 오리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73) 이삼형 외 8인(2009), 국어 1-1, (주) 도서출판 디딤돌, 12쪽.
윤여탁 외 16인(2009), 국어 1-2, (주) 미래엔컬쳐그룹, 102쪽.

너하구 나하구 살구나무 아이 업은 자작나무
앵도라진 앵두나무 우물가에 물푸레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불 밝혀라 등나무
목에 걸려 가시나무 기운 없다 피나무

꿩의 사촌 닥나무 텀벙텀벙 물오리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이놈 대끼놈 대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빠르구나 화살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나무타령>[74]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옻나무
갓난아기 자작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꿩의 사촌 닥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동지섣달 사시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십 리 절반 오리나무 아흔 지나 백양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동요 <나무타령>[75]

청명 한식에 나무 심으러 가자
무슨 나무 심을래.
십 리 절반 오리나무
열의 갑절 스무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 뀌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 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네 편 내편 양편나무

74) 이남호 외 11인(2009), 생활국어 1-2, (주) 미래엔컬쳐그룹, 94쪽.
75) 김종철 외 7인(2009), 생활국어 1-2, (주) 도서출판 디딤돌, 49쪽.

입 맞추어 쪽나무
너하고 나하구 살구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내 밭두렁에 내나무…….

<나무타령>[76]

목에 걸려 가시나무	죽어서도 살구나무
와들와들 떨기나무	부들부들 사시나무
어서 가자 갓나무야	다시 오자 옻나무야
가다 보니 가닥나무	오다 보니 오동나무
다 갔는데 오구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오줌싸고 쉬나무	방귀 뀌어 뽕나무
데끼 놈아 대나무	화가 나도 참나무
앵돌아져 앵도나무	미안하다 사과나무
두 손 싹싹 비자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농부들아 가문비나무	경 읽어라 소귀나무
냄새난다 노린재나무	냄새 좋다 향나무
꿩 대신에 닥나무요	염소 사촌 백양나무

동요 <나무 노래> 혹은 <나무 타령>을 보면,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옻나무' 등과 같이 뜻은 다르지만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나는 동음이의어를 묶어서 재미있는 노랫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말의 재미와 운율을 살려 여러 가지 나무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재미난 말소리를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 읽으면서 운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음이의어의 말놀이를 상상하며 귀를 통해 직접 들어 보면,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생생한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다.

민요는 스스로 즐기는 것이므로 창자끼리 결합하여 노래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보다 동질적이다. 그리고 민요는 어느 구비문학보다도 기능적으로 구분된다.[77] 민요에는 남요(男謠)·부요(婦謠)·동요(童謠)의 구분이 있는데,[78]

76) 우한용 외 25인(2009), 생활국어 1-2, (주) 두산동아, 15쪽.
77)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2006),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49쪽.
78)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2006), 위의 책, 151~152쪽 참조.

이중에서 동요를 살펴보겠다. 동요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아이들은 노동이나 의식이 없으므로 유희요와 비기능요만 있다. 「나무 노래」와 같은 전래동요는 곡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노래로 불리거나 웅얼거리는 소리로 구연되며 변모 개작되기도 하면서 사물의 특징과 낱말을 조화시켜 부른다.[79] 전래동요의 리듬과 압운, 반복과 후렴의 배열에서 오는 즐거운 소리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80] 또한 전래동요가 지닌 즉흥성은 언어적 창의성을 길러준다. 동요의 주목할 만한 특성은 동요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동요의 전체를 즉흥적이고 독창적으로 완성하는 집단요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요 또한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상상해낸 어휘를 통해 적층성을 가지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운율을 듣고 부르면서 언어를 익히고 언어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81]

구한말의 애국지사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유머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세 가지 일화를 <이상재 선생의 해학>[82]이라고 하여 말놀이 요소와 그밖에도 조롱과 풍자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일본 순사를 낮춰 '개'라고 불렀지만 그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나리'라고 불렀는데, '순사 나리'라고 할 것을 이상재 선생은 연설을 하며 '개나리가 만발했다.'라고 하니, '개나리'들은 어리둥절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연장에는 폭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삼일 운동 직후 진상을 조사하러 온 미국인 '스타' 박사가 이상재 선생의 집을 대낮에 찾아가자, '별 박사, 대낮에 어떻게 별이 오나, 밤에나 찾아오라.'라는 세련된 유머를 구사했다고 한다. 한국인을 야만인이라고

79) 박현주(1998), 앞의 논문, 13, 41쪽 참조. (222. '재담의 기능', 본고 20쪽.)
80) 정미경 · 이민정(2004), 앞의 논문, 202쪽 재인용. (Norton, E. E. (1987) *Children's literature in the elementary school.*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222. '재담의 기능', 본고 21쪽.)
81) 방은경(1996), 「동시 전달하기 활동이 유치원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조.
82) 김상욱 외 7인(2009), 국어 1-1, (주) 창작과 비평, 129~131쪽.

모욕했던 스타박사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희화화하여 웃음으로 승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일화는 말놀이 요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말놀이 중에서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를 통한 언어유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창비(김) 국어의 읽기 본문 텍스트로 <말로 주고 말로 받기>가 등장하는데, 재담의 제목부터 속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를 패러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말'은 본래의 '말(斗)이 아니라 '말(言)'이므로 길게 발음하며, 이는 동음이의어를 통한 말놀이이다. 천재(노) 국어의 목표 학습 활동 중 '웃음을 터뜨리는 요소 파악하기'에서 <남녀의 데이트>와 <덩달이와 가마니>라는 짧은 현대 재담을 통하여 발음이 비슷한 언어 표현으로 인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박타령>[83]의 *'흥부 가족, 배불리 먹다*[84]라는 부분으로, 흥보가 밥을 먹는 장면이다. 소리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흥부가 밥을 먹는 모습을 소리와 행동의 반복적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는 판소리 사설이 갖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재미의 요인이 된다.

> 흥부가 밥 먹는다. 흥부가 밥을 먹는다. 뚝, 딱, 뚝, 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흥부가 밥 먹는다. 뚝딱, 뚝딱, 뚝딱, 뚝딱, 뭉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딱.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아이고, 어찌 많이 먹어 놨던지 흥부가 밥을 먹다 죽는다.

흥부가 밥 먹는 상황을 묘사한 부분으로 '뚝, 딱, 뚝, 딱, 뚝딱, 뚝딱, 뚝딱, 뚝딱' 의태어의 반복적 표현과 '흥부가 밥을 먹는다. 흥부가 밥을 먹는다',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등의 구절을 의도적으로 과하게 반복하여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소리꾼이 오랜

83) 박봉술(1989), 『동편제 흥보가 창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84) 김종철 외 7인(2009), 국어 1-2, (주) 도서출판 디딤돌, 76쪽.

만에 밥을 먹어 흥겨운 흥부의 심정을 빠른 장단에 맞추어 창으로 부르는 부분으로, 이 소리(창)를 듣는 구경꾼도 이러한 장단에 맞게 저절로 몸을 들썩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지는 *'놀부, 화초장 얻어 오다*[85]라는 대목에서는 놀부가 흥부로부터 화초장을 빼앗고 그것을 얻어낸 기쁨에 흥에 겨워 노래하고 있다.

>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구나, 얻었구나, 화초장 한 벌을 얻었다. 화초장 한 벌을 얻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 쏘냐.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 놀부가 도랑을 건너다가 금세 잊어버리고는,
> "초장화?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간장, 고추장, 구들장, 방장, 송장?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어따, 이것이 뭣이여?"

놀부는 화초장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화초장을 반복하는데 결국은 화초장을 얻은 놀부의 기쁨을 판소리의 창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다. '장'으로 끝나는 말들을 늘어놓는 표현으로 리듬감이 살아있으며 재미가 느껴진다. 또한 외우고 있던 화초장의 이름을 도랑 하나를 건너면서 잊어버리는 모습을 통하여 놀부의 어리석음이 부각된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한국 전통 운문 문학으로 광대 혼자 육성, 몸짓을 통해 여러 가지 장단에 따라 변화시키며 공연을 하는데, 판소리 설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문학, 주로 한글로 된 표현과 양반들을 풍자하는 내용이 많아 서민들 사이에 흥행하다 양반들까지 향유층이 확대되었다. 판소리는 구어체이다 보니 문체의 정형화를 탈피하고 있으며 유난히 과장되고 해학적인 표현이 많다.

판소리는 어떤 사건을 나타냄에 있어서 되도록 장면화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광대는 발림을 풍부하게 구사하여 가창하려 하고, 부분을 따로 가창할 기회가 많으므로 장면화가 유리하다. 그리고 장면마다 어느 정도의 극

85) 김종철 외 7인(2009), 앞의 책, 79쪽.

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숭고한 것을 비속한 것으로 뒤집고, 슬픈 것을 웃음으로 뒤집는 전개가 판소리에는 흔한데, 이리하여 판소리는 점잖고 교훈적인 문학이면서도 이를 뒤집는 풍자와 해학의 문학이기도 하다. 점잖은 교훈은 판소리에서 낯설 수 있는 양반문학적인 요소이나 풍자와 해학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문체를 보면 양반문학의 규범적인 문장을 대표하는 한시구나 고사 등이 동원되나, 일상적 구어체는 반복·과장·언어유희·욕설 등이 어우러져 효과를 거둔다. 또한 어느 한 대목을 따로 정리된 노래로 부르려고 하는데,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여 청중이 주인공의 운명에 동화되는 것을 차단하며 비판적 거리를 갖게 한다.[86] 이처럼 판소리는 구비문학답게 적층성을 지닌 공동작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인간 정신의 형태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모방하기 때문에, 언어는 희극적 효과를 갖는다. 언어가 완전무결하고 통일적인 유기체들로 분리될 수 없다면 언어는 그 어떤 코믹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조화롭고 거울처럼 매끄럽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희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87] 이밖에도 <하회 별신굿 탈놀이>이나 <논어를 아느냐, 통감을 아느냐> 등의 고전 작품, 그리고 휴대폰 문자, 인터넷 게시판, TV 프로그램 등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말놀이를 우리는 삶속에서 즐긴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동요 '나무 노래'나 판소리 「흥보가」처럼 언어유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이처럼 재담 중에서도 특히 말놀이는 사람이 모여 주거니 받거니 재담을 하고 그것을 같이 웃으면서 듣고 거기에 또 재미나게 보태면서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담을 듣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86)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2006), 앞의 책, 220~221쪽.
87) 류종영(2005), 앞의 책, 375쪽.

4.2. 기지가 두드러지는 재담

기지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번뜩이는 재치와 지혜로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먼저, 고전문헌 중 그러한 기지가 빛나는 <닭을 빌려서 타고 가지>[88]이라는 재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잘 했다. 일찍이 친구를 찾아갔더니, 주인이 술상을 차렸는데 안주가 단지 채소뿐이었다. 주인이 먼저 사과하며 말하였다.
>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만한 것은 없고 오직 채소 반찬뿐이니 부끄러울 뿐이네."
> 그때 마침 마당에서 닭들이 어지럽게 바닥을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이 말했다.
>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는 법이니,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술안주를 해야 하겠네."
> 주인이 깜짝 놀라 물었다.
> "말을 잡으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가?"
> 김 선생이 말했다.
>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면 되지."
>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이 재담은 문신 서거정(徐居正)이 엮은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중에서 「차계기환(借鷄騎還)」[89]이라는 설화를 재구성한 것으로, 비상(조) 국어에 '닭 타고 가면 되지'라는 제목의 읽기 본문 텍스트로 제시되고 있으며, 천재(노) 국어의 목표 학습 활동 중 '웃음을 터뜨리는 요소 파악하기'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래엔 (윤) 국어와 대교

---

88) 노미숙 외 10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54쪽, 235쪽.

89) "金先生者(김선생자) 善談笑(선담소) 嘗訪友人家(상방우인가) 主人設酌(주인설작) 只佐蔬菜(지좌소채) 先謝曰(선사왈) 家貧市遠(가빈시원) 絶無兼味(절무겸미) 惟淡泊(유담박) 是愧耳(시괴이) 適有群鷄(적유군계) 亂啄庭制(난탁정제) 金曰(김왈) 大丈夫(대장부) 不惜千金(불석천금) 當斬吾馬(당참오마) 佐酒(좌주) 主人(曰)(주인(왈)) 斬一馬(참일마) 騎何物而還(기하물이환) 金曰(김왈) 借鷄騎還(차계기환) 主人大笑(주인대소) 殺鷄餉之(살계향지) 仍與大噱(잉여대갹)."
—서거정 지음(1998), 『(對校 · 譯註)太平閑話滑稽傳』, 이래종 옮김, 서울: 태학사, 216쪽.

(박), 좋은책 (이) 생활국어에 나타난다. 이 재담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타기 보다는 먹기에 더 익숙한', 즉 '식용의' 닭을 빌려서 '타는 수단의' 말 대신 타고 돌아간다는 재치 넘치는 발상에 집중하여, '기지'의 요소가 두드러지는 재담의 예로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90]에 의하면, '타고 다니는 말'과 '술안주로 할 수 있는 닭'은 서로 '불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것일수록 웃음은 강렬하다. 즉, 생각한 것과 직관된 것 사이의 폭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상호 관련성의 동기화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즐거움은 더욱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91] 화자는 청자인 친구가 화자의 재치 있는 한 마디를 듣고 나서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친구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 화자는 난감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를 펼쳐 보인 것이다. 또한 이 재담에는 기지뿐만 아니라 과장을 포함한 반전(상황 뒤집기)의 요소가 숨어있다. 우리는 이 재담을 통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옛 시대의 이야기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 기발한 재치가 별 무리 없이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현대 생활에서 널리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 중에서 기지를 통한 반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너무해."라고 하자, 그에 대한 친구의 반응으로 "너, 무해. 그럼 난 배추할게."라든지, "삶은…… 달걀."이라는 식으로 요즘 통신언어 시대의 예상을 뒤집는 재기발랄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굳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재미난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법한 <천천히 이 뽑기> 혹은 <치과

90) Arthur Schopenhauer(2003),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곽복록 옮김, 을유문화사, 105~107쪽 참조.
91) 류종영(2005), 앞의 책, 277~279쪽 참조.

이야기>라는 재담이 있다. 이를 뽑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으면서 비용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환자의 말에 의사는 환자분이 원하면 이를 아주 천천히 뽑아 줄 수도 있다면서 기지를 발휘하여 하마터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을 재치 있게 넘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위기 상황에서 재치를 발휘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허를 찌르는 발상도 의도적으로 표현된 언어의 표면적 의미 뒤의 숨겨진 의미까지 웃음을 자아낸다면 기지라고 볼 수 있다.

4.3. 과장이 두드러지는 재담

과장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표현할 때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서 강조점을 달리 하여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기법은 바람직한 극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비행기 흡연>[92]

> 오늘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항공사에서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흡연석을 마련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실 분들께서는 날개 위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며 영화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안내 방송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비행기에서 흡연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안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도 유쾌한 가운데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멋쩍은 웃음과 함께 간담이 서늘해졌을 수도 있다.

92) 이충우 외 7인(2009), 국어 1-2, (주) 웅진씽크빅, 193쪽.

이 재담에서는 청자의 허를 찌르는 반전으로 예상을 벗어나는 발상과 과장을 통한 풍자 그리고 조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말놀이가 두드러지는 판소리 「흥보가」의 과장된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타령>에 제시된 *'흥부 가족, 배불리 먹다'* 부분을 보면 '죽도록 굶었으니 매명하(每名下)에 한 섬 밥 못 먹것느냐?'라든지, '한 곳에 쌓아 놓으니 밥 무더기가 삼간(三間) 집채만 하것다.', '애비 영전에 밥 한 알이라도 모르게 먹어서는 밥으로 목을 베리라!', '아이고, 어찌 많이 먹어 놨던지 흥부가 밥을 먹다 죽는다'등의 허풍이나 다름없는 과장된 표현이다. 먼저 '매명하(每名下)'라는 것은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라는 뜻이므로, 한 사람 당 밥을 한 섬씩 먹을 정도로 극심하게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과도하게 해학적인 표현으로 웃어넘기게 된다. '한 곳에 쌓아 높으니 밥 무더기가 삼간(三間) 집채만 하것다'는 표현 역시 박을 타고 나서 갑작스럽게 생긴 쌀더미를 보고 작은 크기의 집 정도라고 과장된 표현으로, 흥부가 그전까지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왔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그 와중에도 재치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부가 밥을 먹다 죽는다'라는 표현은 그동안 굶주려왔다가 흥부가 장단에 맞춰서 흥겹게 밥을 먹다가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정신을 잃어서 '살려고 먹는 밥인데, 오히려 밥을 먹어서 죽는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흥부가 실제로 죽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만큼 생사를 넘나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애잔하고 서글픈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냥 유쾌하기 보다는 마음 한 구석이 짠하고 애잔해지는 웃음을 자아낸다.

같은 동편제이나 소리꾼이 다른 판소리 「흥보가」[93] 중 하나인 <밥타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밥타령>[94]

93) 송순섭(2007), 『동편제 흥보가 창본』, 운산 송순섭 판소리 연구원.

어디 아버지 배 좀 봅시다.
아 아버지 배에가 밥이 환하니 비쳤소 비쳐.
어머니, 아버지 배에다가 강아지 한 마리 몰아넣읍시다.
아니 이놈아, 강아지가 들어가서 어쩌게야.
아 강아지가 밥을 다 먹어 버릴 게 아니요.
아 이놈아, 밥은 다 먹는다 치고
그러면 강아지는 어디로 나오게야.
그러기에 호랑이를 한 마리 몰아넣지요.
호랑이가 들어가서 어쩌게야.
강아지를 콱 잡아먹을 게 아니요.
아이고 이놈아, 강아지는 잡아먹는다 치고
호랑이는 어디로 나오게야.
그러기에 독한 포수를 하나 몰아넣지요.
포수가 들어가서 어쩐다냐.
총으로 탕 쏴 노면 호랑이가 죽지 않겠소.
아이고 이놈아, 호랑이는 죽는다 치고
그럼 포수는 어디로 나올 것이냐.
그러기에 나랏님 거동령(擧動令)을
아부지 볼기짝에다가 탁 쌔려 붙여 노면
제까짓 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어디 두고 보시요.

이 대목을 이리 허였으되 어디 그럴 리가 있으리오.
이것은 잠시 소리꾼들의 재담이었다.
흥보가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많이 나와 부자가 되었제.
흥보가 밥을 많이 해 가지고 식구대로 배불리 먹고 나서
흥보가 밥타령을 허고 놀던가 부더라.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의 흥부를 어떻게 살려 낼 것인지 아들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몰아넣는 대상이 '강아지'에서 '호랑이', '포수', '나랏님 거동령'으로 점차 커지면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즉,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느껴지고, 실제 불가능한 것들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나랏님 거동령(擧動令)'이란 임금이 행차함을 알리는 명령(문서)이므로, '밥이 혹시라도 임금의

94) 박영목 외 12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216~217쪽.

명령을 받들고 나오지 않을까'하는 엉뚱한 발상에서 나온 익살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흥부이야기'는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임에도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웃음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재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한국방송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95]에 등장하는 [16년간 단 한 번도 추위를 느끼지 못한 '오한' 김○○], [16년간 단 한 번도 발음을 틀린 적인 없는 '버벅' 김○○][96] 등의 표현은 실제와 전혀 다르게 반어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재미를 준다. 특히 '16년간 단 한 번도'라는 표현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일부러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제를 설정하여 실제와 거리감을 줌으로서, 청자가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현실로 돌아오기까지 격차를 줄이는 동안 화자는 청자를 마음껏 웃길 수 있고, 청자 또한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화자와 함께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과장은 비록 사실과 다른 거짓말과 허풍이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웃음을 줄 수 있다.

4.4. 풍자가 두드러지는 재담

풍자는 항상 현실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태도에 기인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날카롭고 노골적인 공격의도를 품고 대상의 약점을 폭로하지만, 유머러스한 효과로 비난, 공격 뒤에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악덕과 부조리를 비판함으로써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개인과 사회를 교정한다. 다음은 한국방송 개그콘서트 코너 「대화가 필요해」[97]를 패러디하여 개작한 재담이

95) 한국방송 개그콘서트 코너 「달인」(2007.12.16~)은 16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노력한 달인은 TV쇼에 출연을 하지만 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자에게 쫓겨나고 사회자는 달인의 수제자에게 묘기를 제대로 보여 달라고 하는 개그콘서트의 간판 프로그램. 김병만이 달인으로, 류담이 사회자로, 노우진이 달인의 수제자로 등장한다.

96) 김대행 외 9인(2009), 생활국어 1-1, (주) 천재교육, 19쪽.

97) 한국방송 개그콘서트 코너「대화가 필요해」(2006.11.19~2008.11.30)는 개그 콘서트의 장수 코너로 대화가 부족한 한 가족의 식사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신봉선과 김대희가 부부로, 장동민

다.

<대화가 필요해>[98]

엄마: 아참, 여보, 이거. 반찬 값 한두 푼 애껴가 어머님, 아버님 여태껏 여행 한 번 못 가 보셨다 아닙니꺼. 두 분이서 오붓하게 다녀오시라고 제가 제주도 여행권 준비했습니더.
아빠: 여보!
엄마: 아이, 괜찮습니다!
아빠: 우리 아부지, 어무이 제주도 사신다. (침묵이 흐르다가) 밥 묵자!
아빠: 이봐라, 이봐라! 이거, 이거, 이거, 응? 이 뭐꼬? 이 박스들. 매일 집에서 홈쇼핑이나 보고 충동구매해 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 죄다 구매해 가지고 싸놓고. 이거 다들 우짤끼고?
엄마: 우리 내일 이사갑니더!
아빠: (침묵이 흐르다가) 밥 묵자!

개정 교과서를 통틀어 총 4회 수록된 <대화가 필요해>라는 재담은 <밥 묵자>나 <대화 좀 합시다> 등의 제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가족임에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 서먹한 인간관계를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풍자한다. 시부모님의 거처가 제주도임에도 시부모님께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아내나, 내일 당장 이사를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오해하여 이삿짐을 보고 홈쇼핑을 하였다고 남편이 아내를 꾸짖는 일 등은 재미는 있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거처를 모르는 핵가족이라는 것과, 주부들의 홈쇼핑 중독이라는 사회상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 대화를 자주 하지 않아서 한 집에 사는 가족임에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어긋나는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아빠는 아들이 몇 학년인지, 엄마는 아이가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것들을 모르고, 이미 돌아가신 장모님의 생신

이 고등학생 아들로 등장한다. 해당 교과서들의 출처 목록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98) 이숭원 외 9인(2009), 생활국어 1-2, (주) 좋은책신사고, 173쪽, 186쪽.

을 챙기려 하는 등의 다소 과도하게 엉뚱한 상황을 설정하여,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가장 잘 통할법한 가족 사이인데 오히려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어버린 우리네 일상을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판소리 '흥부가' 가운데 <밥타령>[99]의 '전에는 밥 없어서 배고파 죽겠더니마는 인제는 밥을 많이 먹어 돌아가시네.'라는 부분에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흥부가 극심한 가난으로 밥을 먹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많은 밥을 한꺼번에 먹어버린 모습이다. 판소리는 구연되는 양식으로 당시의 언중들이 사용한 언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특히 '연행'의 양식으로 연극성이나 음악성까지 두루 갖춘 종합예술로서 창자와 고수, 청중이 상호작용하면서 극적 효과를 표출한다.[100] 따라서 판소리를 국어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수업을 한결 생생하고 흥미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고전 문학을 통해서 정서 교육 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미의식이나 현재 삶의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판소리에는 관념적 인과론과 같은 사고방식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과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난다. 관념적 인과론의 첫째 내용은, 인간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질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에는 관념적 인과론만 나타나지 않는다.[101] 관념적 인과론은 표면적 주제를 이루고 주로 설명을 통해 역설되지만, 작품의 실질적인 갈등이나 장면에서는 이와는 다른 이면적인 주제가 구현되어 있고, 이면적 주제에서 판소리가 지닌 사회의식(현실적 합리주의)이 평가될 수 있다.[102] 이를테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질서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돈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다.[103] 관념적 인과론은 언제나

99) 박영목 외 12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216쪽.
100) 도혜정(2008), 「구연성을 활용한 <흥보가> 교수· 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6쪽.
101) 장덕순 외 3인(2006), 앞의 책, 223쪽.
102) 장덕순 외 3인(2006), 앞의 책, 223쪽.
103) 장덕순 외 3인(2006), 앞의 책, 224쪽.

엄숙하게 역설되나, 이와 어긋나는 현실적 합리주의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표현된다. 풍자와 해학은 지금까지 엄숙하다고 믿어 오던 것이 사실은 허망하다고 밝혀질 때 생기며, 그릇된 관념을 파괴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는 양반 지배층의 의식에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의식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판소리는 구비문학으로서도, 판소리계 소설로 전환되어서도 소망 의식을 해학 속에 담아내는 장르 중 하나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104]

그밖에도 매체를 통한 학습 활동에서 풍자와 조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떼기 힘든 인터넷과 TV에서 볼 수 있는 재담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재담의 사회적 기능에서 더 나아간 사회비판적 기능에 어우러져 제시되는 것을 비단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구비재담과 통신재담이 말과 문자를 매개로 달리 전승되지만, 화자(작가)와 청자(독자)가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참여에 의해 공동작을 적층해가는 전승과정은 양자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구비문학의 구술성의 원리가 수용된 통신재담은 고전 재담이 지닌 웃음의 전략을 적절히 수용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105]는 것을 각종 패러디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마주하여 재담을 들으면서 신명나게 흥을 돋우며 어울려 놀 수는 없지만, 가령 인터넷 통신재담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댓글을 달거나 패러디하여 개작을 하는 등의 피드백이 활발하다. 이와 같이 통신 기기의 발달로 구비문학의 구술성과 적층성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접목하여 현대 일상에서의 재담도 구비재담처럼 여러 사람이 공

104) 장덕순 외 3인(2006), 앞의 책, 226쪽 변용.
105) 강은해(2001a), 「한국 재담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학논집』 제2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26, 39쪽.

동으로 만들어 나가며 함께 즐기게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재담 또한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구비재담처럼 구비문학의 새로운 갈래를 이어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4.5. 조롱이 두드러지는 재담

조롱은 제도보다는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 유머이다. 남을 빈정거리며 놀리는 말이나 몸짓인데, 풍자의 비열한 정도가 심해지면 야유로 변질될 수 있다. 조롱은 신분적 갈등인 상하층의 괴리감이 클수록 극대화된다. 고전 작품에서 작품 전반에 조롱이 등장인물간의 첨예하게 드러나는 대표적 장르가 가면극[106]이다. 가면극 중에서도 특히 「하회별신굿놀이」[107]는 조롱과 풍자가 두드러지는 재담이다.

<하회 별신 가면극>[108]

제 5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

선비와 양반은 몸짓과 춤으로 서로 간의 질투심을 나타낸다.

양반: (화를 벌컥 내면서)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선비: 그대가 진정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아니 그렇다면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선비: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보다 낫단 말인가?
초랭이, 이매: (자기 상전의 세도 자랑을 몸짓한다.)
양반: 암 낫고 말고.
선비: 뭣이 나아? 말해 봐.
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106) 가면극이란 음악 반주에 춤이 주가 되며 거기에 몸짓과 동작, 그리고 덕담과 재담이라고 하는 사설과 노래가 곁들여 있는 것이며, 가면극에서 가면, 춤, 노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원미영(1981), 「하회 별신가면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9쪽.

107)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에서 별신굿을 할 때 공연하던 가면극으로, 아직 연희로서의 독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웅, 2006: 231)

108) 박영목 외 12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233~234쪽.

선비: 뭣이,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팔대부는 또 뭐냐?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이거든.
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데…….
양반: 문상시대, 그것은 또 뭔가?
선비: 문하(門下)보다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 시대(侍大)가 더 크다.
양반: 그것참 별꼴 다 보겠네.
선비: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반: 그러면 또 뭣이 있단 말인가?
선비: 첫째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양반: 뭣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나는 사대부의 자손인데……. ~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라는 부분은 선비가 글자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라는 표현도 숫자를 이용한 말놀이를 함으로써 재미를 준다. '문하시중 그까짓 ~ 시중보다 시대가 더 크다.'라는 말이나, '나는 사서삼경을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라는 부분은 '사대부'에 이어 '문하시중'이나 '사서삼경'이 지닌 본래의 한자 뜻 대신 같은 발음의 다른 뜻을 가진 한자로 해석하여 그 말을 다시 한 번 재미있게 바꾸어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표현은 말놀이와 함께 학식과 지체 등의 비정상적인 다툼을 폭로하여 세태를 풍자하고, 그들의 본모습은 그들이 내세우는 지위만 못하다고 지배계층의 모순을 조롱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준다.[109] 그러므로 <하회 별신 가면극>은 비단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청중들에게도 커다란 공감을 불러올만한 사회비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회별신가면극」은 우리나라 가면극 중에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도시 가면극과는 달리 부락굿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

109) 원미영(1981), 앞의 논문, 44쪽 참조.

하지 못한 농촌 가면극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원형을 비교적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회동의 연희자들은 신의에 의해 이 가면을 쓰게 되면 개인적인 자기는 이미 없어지고 가면을 쓴 새로운 인간상이 부각되어 각기 맡은 배역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왔다고 당시 연희자들은 말했다고 한다. 또, 마을 주민들은 별신 행사시 외에는 가면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득이 보아야 할 경우, 신에게 고하고 나서 보아야 하는 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가면을 만약 함부로 다루게 되면 탈이 난다고 두려워하였다고 한다.[110] 그리고 여러 과장 중에서도 제5장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다 분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하회별신가면극」은 전체적으로 희극이라고 할 수 있다. 선명한 대사와 몸짓은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재미난 언어적 표현으로 되살아난다. 그렇게 해서 위선적인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를 탈과 몸짓으로 감추고 놀이판 위에서 풀어헤치며 사회적 갈등을 예술로 표현하게 된다. 가면을 빌어서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몸짓으로 암묵적으로 항의하는 듯한 표현은, 항의와 비판의 주체를 숨기면서 보복의 화살을 회피하고 구체적 인물을 대중화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상징화시켜서, 지배계층으로부터 피지배계층의 항거에 대한 압제와 보복의 근거를 빼앗아 버린다. 그리하여 우리는 탈에서 비판과 반항, 풍자의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탈을 쓴 연희자가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등장인물을 풍자하게 한다.[111]

다음으로는 또 다른 가면극인 「봉산탈춤」[112]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좋은책 (이) 생활국어에 수록된 <봉산 탈춤>은 전체 7과장 중에서 제6과장 양반춤을 들려준다. 말뚝이는 봉산 탈춤에 등장하는 인물로 양반을 모시는

110) 원미영(1981), 앞의 논문, 13쪽 참조.
111) 원미영(1981), 앞의 논문, 47, 55~56쪽 참조.
112) 「봉산탈춤」은 황해도 일대의 가면극인 「해서(海西)탈춤」에 속한다. 봉산탈춤은 원래 구봉산읍, 현재의 봉산군 동선면 고양리에서 공연했으나 1915년경 사리원으로 옮겼다.
— 장덕순 · 조동일 · 서대석 · 조희웅(2006), 앞의 책, 234쪽.

종의 신분이나 실제로는 양반의 허위와 무능력함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봉산 탈춤>[113]

제6과장 양반춤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 쉬이.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를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3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여기서 '개잘량'이란 '흔히 방석처럼 깔고 앉는 데에 쓰는 개의 가죽'을 뜻하고, '개다리소반'은 다리를 개다리처럼 구부정하게 만든 자그마한 밥상'을 말한다. 즉, 원래 양반(兩班)은 동반(文官)과 서반(武官)을 일컫는 신분상의 특권 계승임에도, 하인인 말뚝이는 이를 비천한 뜻을 지닌 '개잘량(개가죽)'과 '개다리소반'으로 비하하고 있다. 앞서 다루었던 <하회 별신 가면극>과 같이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놀이를 하고 있지만, <하회 별신 가면극>은 양반과 선비간의 학식과 지체 다툼으로 상하 관계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봉산 탈춤> 제6과장 양반춤에서는 신분이 수직적 상하 관계인 양반과 하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인인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조롱이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진다. 특히나 말뚝이가 양반 삼 형제를 놀려대는데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말뚝이가 고쳐 말하는 것만 제대로 듣고 넘어가는 부분은

113) 이숭원 외 9인(2009), 생활국어 1-2, (주) 좋은책신사고, 168쪽.

양반 삼 형제를 더욱 우습게 풍자하여 청중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가면극의 대사는 전승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어떠한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관중적·놀이적 현장성 속에 살아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즉흥성을 갖고 있으며, 구연적인 화술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민중의 일상 생활에서 전승되는 풍부한 구어를 그대로 쓰고, 사투리·비속어·외설어·신소리와 말재롱·속담·은어·관용적 표현·전고(典故)의 인용 등이 자주 사용된다. 가면극의 대사는 일상적 대화와는 달리 그 속에 일정한 운율이 있고, 기존 가요의 사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복법을 자주 사용한다. 상대방은 무시하고 혼자 지껄이거나, 상대방을 앞에 두고 자문자답하거나, 상대방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거나,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 하면서 욕을 하는 등의 어법은 반항적인 민중의 어법을 과장하여 이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문맥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114]

다음으로는 앞서 말놀이가 두드러지는 재담에서 예로 들었던 <이상재 선생의 해학>[115] 중 일부로, 조롱에 가까운 풍자가 나타난다.

> 월남 이상재 선생은 조선 미술 협회 창립 행사에 갔다가 조선 통감부의 장관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여 이완용, 송병준을 만났다. 선생은 기분이 상해서,
> "대감들도 일본 동경으로 이사 가서 사시면 좋을 것이오."
> 라고 빈정댔다.
> 그 말을 들은 이완용과 송병준 두 사람은 선생에게 물었다.
> "영감,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 그러자 선생은 태연히 말하였다.
> "대감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데는 천재니까, 일본으로 가시기만 하면 일본이 망할 것 아닙니까?"
>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새파랗게 얼굴이 질렸다.

114) 전경욱 역주(1993), 『한국고전문학전집 8: 민속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2~13쪽 참조.
115) 박영목 외 12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220쪽.

이상재 선생의 '대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으니 대감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이 망할 것이다.'라는 말은 조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들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반어법을 사용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앞서 말놀이가 두드러지는 재담에서도 등장했던 이상재 선생의 해학은 간접적으로 비판함에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상재 선생은 우리 민족을 미개하게 여긴 일제와 미국을 조롱하고, 친일파를 또한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재미있는 말로 에둘러 표현하였다. 갑작스럽게 우회적인 표현으로 웃음과 재미 속에서 상대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느껴지게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비판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정 국어과 23종 검정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제재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재담의 유형은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개정 교육과정의 7학년 듣기 영역 재담 교육 내용에 제시된 재담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말놀이가 두드러지는 재담과 기지가 두드러지는 재담, 과장이 두드러지는 재담, 풍자가 두드러지는 재담, 조롱이 두드러지는 재담으로 교과서의 재담의 담화와 글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개정 23종 교과서를 통틀어 자주 등장하는 재담 제재를 도표로 정리하여 수록된 위치와 횟수, 재담의 유형을 밝혔는데, 최소 2회 이상 등장하는 재담 위주로 소개하였다. 재담 유형을 익히는 데에 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찾아서 표기하였고, 되도록 출전이 확실하고 출처가 분명한 재담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재담 제재의 문종은 구비문학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놀이와 기지, 과장이 함께 나타나거나 풍자와 조롱, 때로는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이 다 어우러져서 각 재담의 유형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재담의 국어 교육적 가치

웃음은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지닌다. 웃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이며,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음성언어 의사소통, 즉 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두 사람이 아닌 혼자 있을 때 웃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홀로일 때마저도 유·무형의 개체나 기제 등이 존재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웃는 행위는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떤 집단 속에 속해 있을 때 같이 웃는 사람들과의 일치, 이를테면 공범 의식 같은 것이다. 이를테면, 극장 관객의 수가 많을수록 그 웃음소리도 함께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116] 그렇다면 웃음이란 지극히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의도성이 내재된, 결국은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신호인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누구나 음성언어 의사소통을 할 때,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웃음과 유머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굳이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홀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신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웃기도 한다. 이는 지극히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인지적이고 정의적이며 심리적인 측면에서 재담 및 재담 교육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유머의 사회적 맥락은 일종의 놀이이다. 인간에게 있어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유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놀이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놀이는 중요한 사회, 정서 그리고 인지기능을 수행한다.[117] 실제로 모든 포유류는 어린 시절에 놀이에 몰두하는데, 인간은 대부

116) 류종영(2005), 앞의 책, 364쪽 변용. (2.2.2. '재담의 기능', 본고 19쪽.)

117) Rod A. Martin(2008), 앞의 책, 7쪽 재인용. (Bateson, P. (2005). The role of play in the evolution of great apes and humans. In A. D. Pellegrini & P. K. Smith (Eds.), *The nature of play: Great apes and humans* (pp. 13-24). New York: Guilford Press.) (2.2.2. '재담의 기능'. 본

분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머를 통해서 일생 동안 놀이를 계속한다.[118] 가령 우리는 진지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갑작스럽게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함께 웃으면서 잠시나마 놀이의 시간을 갖게 된다.

우리가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는, 비단 사회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도 한다. 유아가 대략 생후 4개월 전후부터 상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웃음으로써 최초의 사회적인 행위를 한다[119]고 한바, 인간은 어떤 상황과 정보를 인지하여 웃게 됨을 알 수 있다. 웃게 되는 유머러스한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머를 만드는 기제는 그것을 생성해내는 사람의 참신한 생각과 행동이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음성 언어 뿐만 아니라 문자 언어, 준언어와 비언어, 그리고 반언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분과 그에 적절한 표정, 어조, 눈짓, 행동 등 무수한 변수가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웃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생각을 한층 유연하게 하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창의력을 키워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또한 고전작품에 나타난 풍자와 해학은 당대 사회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인들이 접할 때에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익숙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요, 동요, 판소리, 가면극 등 구비문학이 교과서의 재담 제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비문학은 재담의 말놀이, 기지, 풍자, 과장, 조롱 등의 여러 유형을 풍부하게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온 공동작의 적층적 형태라는 점이 현대의 통신

고 19쪽.)

118) Rod A. Martin(2008), 앞의 책, 7쪽. (2.2.2. '재담의 기능', 본고 20쪽.)

119) Rod A. Martin(2008), 앞의 책, 3쪽 재인용. (McGhee, P. E (Ed.). (1979). *Humor: Its Origin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1.1. '연구 목적', 본고 2쪽.)

재담과 맞물려, 통신재담이 구비문학의 새로운 갈래를 개척해나가고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체와 관련된 재담의 양면성을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재담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고전문학을 통해서 선인들이 풀어나간 우리 고유의 언어유희의 미학적 아름다움, 그들이 표방한 지혜와 슬기,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 등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웃음을 일으키고 유머를 생성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통과 반응'이다. 의사소통은 곧 소통을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반응 작용이 핵심이다.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함은 생산에 대한 수용와도 같고, 이를 교육 내용 영역에 적용한다면 반응과 수용은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 그리고 이에 짝지어지는 말하기 및 쓰기 영역은 자극과 생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무턱대고 생각했을 때에 말하기 및 쓰기 영역이 듣기 및 읽기 영역에 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오히려 오랜 시간을 듣기 활동과 읽기 활동에 치중하여 교수·학습을 해왔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의 담화와 글을 눈으로 읽고, 가끔 소리 내어 읽으며 지식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그와 함께 쓰기도 해왔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계속 귀를 열고 듣기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정작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교육을 과연 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과 반응의 참여가 필수적인 재담 교육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재담은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의 고리이자 매개가 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재담 교육을 선보이기에 이른다. 재담

교육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과 반응'을 하는 데에 하나의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현대 사회 핵가족화의 단점으로 대화가 없는 가족관계를 들 수 있는데 학습자가 학교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학습 환경에서 재담 교육을 통하여 재담이 지닌 즐거움 제공의 기능과 사회적 기능, 사회 비판적 기능, 창의적 기능, 긍정적 효과의 기능을 익히고,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과 같은 재담의 여러 유형의 재담을 들으며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소통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개정 7학년 국어과 검정교과서 23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어 및 생활국어 교과서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면 총 92책인데 그 중에서 재담 단원이 구성된 여부를 살펴본 후, 재담 단원이 구성된 교과서의 재담 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담 단원에 설정된 영역별로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분석하고 나서, 재담 단원에 구현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보았다. 이 때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7학년 듣기 영역 성취 기준 (4)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한다.'와 내용 요소의 예 '재미있는 말의 종류와 사회적 기능 이해하기',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재미있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기'를 기준으로 삼아 들여다보았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 교육과 연계 교육이 교과서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 간의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2장에서 다루는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유형을 토대로 개정 국어과 교과서 23종에 수록된 재담의 담화와 글을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어교육에서 재담 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먼저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이 때 2007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짚어보고, 교육과정의 학급별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재담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재담 분석을 하기 위한 재담의 이론적 배경 및 재담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웃음과 재담의 개념, 재담의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짚어보고 나서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재담의

유형을 새롭게 다루어 보았다.

3장에서는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 교육의 실제를 들어가기에 앞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 및 재담 교육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과서의 교육과정 반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설정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교과서 분석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재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므로 재담 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되, 재담 단원 분석은 크게 재담 단원의 영역 설정과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간의 재담 교육 연계성 여부도 살펴보았다. 간혹 개정 교육과정의 재담 교육 내용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대체로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를 교과서에 잘 반영하여 재담 단원을 구현했다고 여겨진다.

4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재담의 유형에 따라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재담의 담화와 글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았다. 재담 담화와 글은 다양한 문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재담 제재를 살펴보면 고전문학을 비롯하여 구비문학이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통의 부재를 비판하는 요즘의 통신 재담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꼭 하나의 완결된 글이 아니더라도 말소리나 짧은 어구도 재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담의 유형은 말놀이, 기지, 과장, 풍자, 조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재담이 하나의 유형에만 속하지 않고 여러 유형을 아우르며 다양한 재담의 기능과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웃음의 사회성’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유머’에 주목하여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교수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어교육에서 재담 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 먼저 웃음과 유머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재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2007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짚어보고, 교육과정의 학급별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재담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결국 재담의 담화와 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재담의 기능과 유형을 잘 익히며, 재담을 듣고 나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면 현대 사회 소통의 부재를 극복함으로써 비로소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지원부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검정기준』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3: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국어, 도덕, 사회』, 미래엔(대한교과서)

교육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미래엔(대한교과서)

권영민 외 11인(2009), 국어 1-2, (주) 새롬교육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새롬교육

김대행 외 9인(2009), 생활국어 1-1, (주) 천재교육

김상욱 외 7인(2009), 국어 1-1, (주) 창작과 비평

_____ (2009), 생활국어 1-1, (주) 창작과 비평

김종철 외 7인(2009), 국어 1-2, (주) 도서출판 디딤돌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도서출판 디딤돌

김형철 외 18인(2009), 생활국어 1-1, (주) 교학사

남미영 외 11인(2009), 생활국어 1-2, (주) 교학사

노미숙 외 10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천재교육

박경신 외 4인(2009), 생활국어 1-1, (주) 대교
박영목 외 12인(2009), 국어 1-2, (주) 천재교육
방민호 외 12인(2009), 국어 1-2, (주) 지학사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지학사
송하춘 외 6인(2009), 국어 1-2, (주) 박영사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박영사
오세영 외 9인(2009), 국어 1-2, (주) 해냄에듀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해냄에듀
왕문용 외 4인(2009), 국어 1-1, (주) 대교
_____ (2009), 생활국어 1-1, (주) 대교
우한용 외 25인(2009), 국어 1-2, (주) 두산동아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두산동아
윤여탁 외 16인(2009), 국어 1-2, (주) 미래엔컬쳐그룹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미래엔컬쳐그룹
윤희원 외 17인(2009), 국어 1-2, (주) 금성출판사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금성출판사
이남호 외 11인(2009), 국어 1-2, (주) 미래엔컬쳐그룹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미래엔컬쳐그룹
이삼형 외 8인(2009), 국어 1-1, (주) 도서출판 디딤돌
_____ (2009), 생활국어 1-1, (주) 도서출판 디딤돌
이숙 외 11인(2009), 국어 1-2, (주) 유웨이중앙교육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유웨이중앙교육
이숭원 외 9인(2009), 생활국어 1-2, (주) 좋은책신사고
이용남 외 9인(2009), 국어 1-2, (주) 지학사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지학사
이충우 외 7인(2009), 국어 1-2, (주) 웅진씽크빅

_____ (2009), 생활국어 1-2, (주) 웅진씽크빅
조동길 외 11인(2009), 국어 1-2, (주) 비유와 상징

단행본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구현정(2000), 『대화의 기법』, 경진문화사
권순희(2005),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교육』, 역락
김경태(1991), 『당신도 남을 웃길 수 있다』, 지식산업사
김지원(1983), 『해학과 풍자의 문학』, 서울
김진배(2008), 『유머 성공학』, 눈과 마음
류종영(2005), 『웃음의 미학』, 유로서적
박봉술(1989), 『동편제 홍보가 창본』,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서울
서거정 지음(1998), 『(對校・譯註)太平閑話滑稽傳』, 이래종 옮김, 서울: 태학사
서정오(2010), 『우리 옛이야기 백가지 1・2』, 현암사
송순섭(2007), 『동편제 홍보가 창본』, 운산 송순섭 판소리 연구원
용혜원(2007), 『성공을 부르는 웃음, 유머』, 나무생각
이강엽(1998), 『바보 이야기, 그 웃음의 참뜻』, 평민사
이상근(2002), 『해학 형성의 이론』, 경인문화사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정복 외(200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2006),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전경욱 역주(1993), 『한국고전문학전집 8: 민속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전은주(1999), 『말하기 · 듣기 교육론』, 박이정
조연순 외(2008),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최미숙 외 6인(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한얼 유머 동호회(2000), 『유머학, 유머를 알면 인생이 즐겁다 : 유머 창작기법 개론서』, 미래 문화사
Aristoteles(2002), 『시학(Poetics)』,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Arthur Schopenhauer(2003),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곽복록 옮김, 을유문화사
보그랑데/드레슬러(Beaugrande de R.-A/Dressler, W., 198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ubingen. (김태옥/이현호 공역, 담화 · 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 1991)
Henri Bergson(2008), 『웃음』, 정연복 옮김, 세계사
Rod A. Martin(2008), 『유머심리학: 통합적 접근』, 신현정 옮김, 박학사
Steve Neale(2002), Popular film and television comedy, 『세상의 모든 코미디』, 강현두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Yonehara Mari(米原万里)(2007), 『유머의 공식』, 이현진 옮김, 중앙 Books

논문

강문희(1983), 「한국 아동의 유우머 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강은해(2001a), 「한국 재담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학논집』 제2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2001b), 「구비문학과 대중매체 문화」, 『口碑文學硏究』 제13집, 한국구비문학회
구자은(1991), 「대화구조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구현정(1999), 「대화의 원리에서 본 유머 담화」, 『한말연구학회 '99 여름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한말연구학회
_____(2000), 「유머 담화의 구조와 생성 기제」, 『한글』 248호, 한글학회
권순희(2002), 「매체 변화에 따른 유머의 표현 기제」, 『국어교육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정우(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특성」, 『한말연구』 제25집, 한말연구학회
김정우(2009), 「'국어' 교과서의 영역 통합 양상 분석: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2집, 한국독서학회
김종철 외 5인(2006),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제19집, 한국어 교육학회
김주현(2008), 「코미디 담화의 구성과 웃음 유발 요소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나(2009), 「유머 텍스트를 활용한 화법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경완(2002), 「유머 텍스트에 나타나는 화용적 추론 구조의 양상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제22집, 언어과학회
_____(2002), 「유머 텍스트의 내적 구조와 추론 양상—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머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13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노명완(1997), 「말하기·듣기 교육의 개념과 탐구과제」, 『말하기·듣기

영역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화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도혜정(2008), 「구연성을 활용한 <홍보가>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류종영(2000),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세계극 메타포」, 『독일어문학』 제13집, 8권 3호, 한국독일어문학회

_____(2002), 「웃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19집, 한국독일어문학회

_____(2003),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웃음이론」, 『독일어문학』 제29집, 한국독일어문학회

_____(2005), 「장 파울의 주관적 웃음 이론과 그 영향」, 『독일어문학』 제29집, 한국독일어문학회

박근서(1998), 「텔레비전 코미디의 즐거움과 담론화하는 권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근서(2006), 「웃음, 위반과 일탈의 텍스트: 프로이드의 공식을 중심으로」, 『웃음문화』 창간호, 한국웃음문화학회

박남경(2005),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 분석 연구—검인정 교과서 4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수자(1995), 「말하기·듣기 교재의 체계화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1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영원(1994), 「효과적인 광고표현을 위한 시각적 유머에 관한 연구: 광고 Illustration을 중심으로」, 『청주대 청예논총』 제8집,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박영원(1996), 「디자인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시각적 유머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 청예논총』 제10집,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_____(2000), 「웹사이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디자인 유머효과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제11권, 한국광고학회

박찬미(2010), 「유머 전략의 화법 교수 학습 적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태호(2005), 「좋은 국어 수업 전개를 위한 수업대화 분석 요소」, 『한국어문교육』 제13집, 한국어문교육학회

박현주(1998), 「전래동요와 창작동요 프로그램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방은경(1996), 「동시 전달하기 활동이 유치원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대석(2004), 「한국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성호주(1983), 「한국어의 언어유희」, 『한국학 논총』 제1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손세모돌(1999), 「유머 형성의 원리와 방법」, 『한양어문』, 제17집, 한양어문학회

_____(2000), 「토크쇼에서의 웃음 유발 장치」, 『한국언어문화』, 제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송지언(2008), 「인터넷 답글에 나타난 웃음의 분석과 국어활동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신동흔(1998), 「PC 통신 유머방을 통해 본 현대 이야기 문화의 단면」, 『민족문학사연구』 제13집, 민족문학사학회

심미영(1991), 「인지양식과 타인의 반응양식이 유머에 대한 이해와 반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승희(2003), 「정서 지능 수준에 따른 유머 활동 경험이 유아의 창의성과 유머 이해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원미영(1981), 「하회 별신가면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육영주(2003), 「언어유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천탁(2007), 「국어교육에서 유머 텍스트 활용 방안」, 『청람어문교육』 제35집, 청람어문교육학회

이경화(2000), 「매체 언어의 국어 교재화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7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도영(1998),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1999a), 「유머 텍스트의 웃음 유발 장치」, 『텍스트 언어학』 제7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_____(1999b), 「유모어 텍스트의 웃음 유발 장치에 대한 연구」, 『한국텍스트언어학회 '99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원규(2008), 「교과서에서의 재담 교육 구현방향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재선(2005), 「청소년의 유머 감각과 유머스타일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재원(2000), 「고리적 텍스트응집성 수단들」, 『텍스트언어학』 제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_____(2001), 「응집성·응집성들」, 『텍스트언어학』 제10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_____(2001), 「드 보그랑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텍스트언어학』 제11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_____(2003a), 「유머 텍스트 연구」, 『독어교육』 제28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_____(2003b), 「유머 텍스트와 대화함축」, 『텍스트언어학』 제15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_____(2006), 「의사소통기론에 기댄 유머 텍스트의 분석—개그콘서트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35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이주형(2011), 「댓글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지원(2007), 「유머 담화의 기제와 제약 요건—TV 광고문에 나타난 유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28집, 우리어문학회
전은주(1998), 「말하기·듣기의 본질적 개념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경원(2008), 「보르헤스 문학세계와 유머」, 『世界文學比較硏究』 제24집, 세계문학비교학회
정동화(1976), 「춘향전에 나타난 해학성」, 『국어교육』 제27집, 한국국어교육학회
정미경·이민정(2004), 「전래동요를 활용한 작가적 전략이 유아의 어휘력 및 이야기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1권 2호, 미래유아교육학회
정현선(2004a), 「인터넷 유머 이해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중학교 국어 재량활동에 실시한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1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_____(2004b), 「인터넷 유머 이해의 문화교육적 고찰: 다중문식성과 하이퍼텍스트적 소통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제14집, 한국어의미학회
정혜민(2009), 「재담의 교수·학습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현지(2005), 「유머유형의 선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주경희(2007), 「언어 유희적 기능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텍스트언어학』 제23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최명선 외(2007), 「청소년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대인관계기술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 제10집, 한국놀이치료학회
_____ 외(2007), 「청소년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이 리더십기술에 미치는 영향」,『청소년학연구』 제14집, 한국청소년학회
최영건(2009), 「유머 텍스트 처리에서 스키마의 활성화 과정」,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성일(2001), 「유머 텍스트의 원리와 언어학적 분석」, 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2002), 「유머 텍스트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_____(2004), 「유머 텍스트의 구조와 원리」, 『화법연구』 제7집, 한국화법학회
_____(2006), 「유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겨레어문학』 제37집, 겨레어문학회
한일섭(1999), 「서사 텍스트에서의 서술형식」, 『독일문학』 제71집 1호, 한국독어독문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Humor Education of the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Focusing on the Authorization Textbooks for Seventh Grade—

Hwang, Jeong-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crutinizes on an educational method using humor that needs to be covered on Korean language textbooks with primary focus on “the social nature of laugh” and “humor for advisable communication.” Thu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ntice effective discussion on the teaching environment that enables the educational utilization of this method in actual classrooms in more specific manner. To realize this, it is imperative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humor. First, I will newly define the terms: “laugh” and “humor” and then will analyze the contents of education using humor that are reflected on the 2007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At the same time, we will als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subject as revised in 2007 and its education curriculum. Then, we will go over

the contents of education using humor in accordance with the grade and the domain for each class of the education curriculum.

In the second chapter, I would like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types of humor for humor analysis. We can apprehend the types of humor that induce laugh only upo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laugh and humor along with the principle and functions of humor. Therefore, we will first look into these aspects and then discuss the types of humor in a new perspective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In the third chapter, I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07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and would like to review the trend of reflecting the education curriculum on the textbook while setting analysis standards before analyzing the textbook itself. Since the education curriculum can be one of the most essential and objective criteria in learning how to teach,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trend of how the education curriculum is reflected on the textbook. The textbook analysis will then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set standards. In this thesis, which concerns the research on the education curriculum using humor, I will analyze with the focus on the units related to humor. The analysis on humor-related units will generally review on setting the domain of humor-related units, the title of the units, study objective and study activities. Further review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rticulate Korean language textbooks with conversational Korean language via humor education will follow.

In the fourth chapter, I would like to analyze the topics of

humor that are included in the textbook in accordance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humor, as discussed in Chapter 2, by type. In the fifth chapter, I will emphasize the educational value of humor in Korean language to further strengthen the argument of this thesis. The sixth chapter is the conclusion which summarizes the previous discussions on humor education and makes comments for researches to be followed.

The targets of this research are 23 species of the authorization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the revised 7th grade. If we divide the Korean Language and conversational language textbooks into the first and second semester, there are 92 books in total. I will review whether the units on humor are included in these books and then selectively research in depth those textbooks, which include the units on humor, with particular interest in those units. After conducting an analysis on the title of big unit and that of small unit by domain as set in the humor-related units, I would like to analyze the study objective and study activities as embodied in the humor units. At this stage, I will conduct examin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 standard (4), as suggested in the 7th grade listening domain - "identify the idea and the meaning of funny sayings as expressed in humor" - and the examples of the content factor - "understanding the type and social function of funny sayings," "identifying the idea of funny sayings," "listening while appropriately reacting to funny sayings." To find out whether the integrated education and the link education which are emphasized in the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are actually being realized, I will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articulate Korean language textbooks with conversational Korean language via humor educ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ype of humor as discussed in Chapter 2, I will review the conversations and writings of humor that are included in the 23 species of the revised Korean Language textbooks by their type.